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도 문화재안내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산일출봉, 성읍마을, 알뜨르비행장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自然·文化遺產教育學科

玄 東 學

2020年 8月

# 제주도 문화재안내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산일출봉, 성읍마을, 알뜨르비행장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恩 石

玄 東 學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年 8月

현동학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장 승 희	
위 원	정 광 중	
위 원	김 은 석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20年 8月

# A study on current condition of heritage signboard and improvement plan of Jejudo

- Focused on Seongsan Ilchulbon, Seongeup Village, Altteureu Airfield -

Dong-Hak Hyun  
(Supervised by Professor Eun-seok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2020.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Eun-seok Kim,  
Prof.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대상 .....	2
II.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	7
1. 안내판의 기능 및 종류 .....	7
2. 안내판 개선 원칙 .....	13
III. 제주도 문화재안내판 현황과 문제점 .....	25
1. ‘성산일출봉’ 안내판 현황과 문제점 .....	25
2. ‘성읍마을’ 안내판의 현황 및 문제점 .....	35
3. ‘알뜰르비행장’ 안내판의 현황 및 문제점 .....	46
IV. 개선방안 및 모델제시 .....	59
1. 제주도 문화재 안내판 개선방안 .....	59
2. 제주도형 문화재 안내판 모델제시 .....	67
V. 결론 및 제언 .....	75
참고문헌 .....	78
Abstract .....	80

## 표 목차

<표 1> 안내판 분석틀 .....	4
<표 2> 타 안내매체와 비교한 안내판의 장점 .....	9
<표 3> 안내판 설계의 A.B.C .....	11
<표 4> 안내판의 분류와 설치기준 .....	12
<표 5> 디자인 개선 원칙 .....	15
<표 6> 안내판 소재별 특징 .....	16
<표 7> 안내판의 시스템 원칙 .....	17
<표 8> 안내판의 경관의 원칙 .....	19
<표 9> 정보전달 원칙의 핵심내용 .....	19
<표 10> 문화재 해설 안내판 화면구성 .....	20
<표 11> 안내문안 지역주민 참여방법 및 검토사항 .....	22
<표 12> ‘셋알오름’의 영문안내판 비교 .....	66
<표 13> 안내판<그림 34>의 한글 번역 .....	73

## 그림 목차

<그림 1> 각 해설매체의 콘텐츠범위 .....	8
<그림 2> 안내판의 콘텐츠분류 .....	10
<그림 3> 안내판 주제 구성의 4단계 .....	11
<그림 4> ‘성읍마을’ ‘근민헌’ 안내판 .....	15
<그림 5> ‘천제연폭포’ 입구의 경관을 해치는 안내판들 .....	18
<그림 6> ‘문주의 품파니스’ 안내판 .....	19
<그림 7, 7-1> 홍보관 옆 ‘성산일출봉’ 안내판 .....	26
<그림 8, 8-1> ‘성산일출봉’ 종합안내판 .....	28
<그림 9, 9-1, 9-2> 정상에 설치된 ‘성산일출봉’ 안내판 .....	30
<그림 10, 10-1, 10-2> ‘성산일출봉’ ‘퇴적작용’ 설명안내판 .....	32
<그림 11, 11-1, 11-2> ‘성산일출봉’ ‘우도’ 해설안내판 .....	34
<그림 12, 12-1> ‘성읍마을’ 종합안내판 .....	37
<그림 13, 13-1> ‘성읍마을’ ‘대장간’ 안내판 .....	39
<그림 14, 14-1> ‘성읍마을’ ‘객주집’ 안내판 .....	41
<그림 15, 15-1> ‘정의골 돌하르방’(동문) 안내판 .....	42
<그림 16, 16-1> ‘성읍마을’ ‘향교’ 안내판 .....	44
<그림 17, 17-1> ‘알뜨르비행장’ 종합안내판 .....	47
<그림 18, 18-1, 18-2> ‘알뜨르비행장’ 안내판 .....	52
<그림 19>, <그림 20> 미군의 ‘오키나와’ 상륙 .....	53
<그림 21> 해방 후 ‘알뜨르비행장’ .....	53

<그림 22, 22-1> ‘알뜨르비행장’ ‘남제주격납고’ 안내판 .....	54
<그림 23, 23-1> ‘알뜨르비행장’ ‘남제주격납고’ 만화안내판 .....	56
<그림 24, 24-1> ‘알뜨르비행장’의 ‘제로센’ 안내판 .....	57
<그림 25> 제주 ‘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 종합안내판 .....	57
<그림 26> 제주 ‘셋알오름’ 개별안내판 .....	57
<그림 27, 그림 27-1> ‘잘리안왈라 박’ 안내판 .....	68
<그림 28> ‘후마운 묘’ 안내판 .....	68
<그림 29> ‘후마운 묘 모스크’ 안내판 .....	69
<그림 30> ‘사르나트유적지’ 안내판 .....	70
<그림 31> 법환동 포구 ‘막숙’의 표지석 .....	71
<그림 32> ‘문주익컴파니스’ 안내판 .....	72
<그림 33> 제주도 ‘저지 꽃자왈’ ‘뱀조심’ 안내판 .....	73
<그림 34> ‘유타 주 Moab 유타국립공원’의 ‘뱀조심’ 안내판 .....	73

## 【부록】 그림 목차

<그림 37> ‘성산일출봉’ 홍보관 옆 안내판1 .....	82
<그림 38> ‘성산일출봉’ 홍보관 안내판2 .....	83
<그림 39> ‘성산일출봉’ 홍보관 안내판3 .....	84
<그림 40> ‘성산일출봉’ 홍보관 옆 안내판4 .....	84
<그림 41> ‘성산일출봉’ ‘응회구’ 해설안내판 .....	85



<그림 42> ‘성산일출봉’ ‘등경대’ 안내판 .....	86
<그림 43> ‘성산일출봉’ ‘등경대’ 경고안내판 .....	87
<그림 44> ‘성산일출봉’ 바위 해설안내판 .....	87
<그림 45> ‘성산일출봉’ ‘육계사주’ 해설안내판 .....	88
<그림 46> ‘해녀’ 해설 안내판 .....	88
<그림 47> ‘성산일출봉’ ‘화쇄난류’ 해설안내판 .....	89
<그림 48> ‘성읍마을’ ‘고평오가옥’ 안내판 .....	90
<그림 49> ‘성읍마을’ ‘객사’ 안내판 .....	90
<그림 50> ‘성읍마을’ ‘한봉일가옥’ 안내판 .....	91
<그림 51> ‘성읍마을’ 종합안내판 .....	91
<그림 52> ‘성읍마을’ ‘근민헌’ 안내판 .....	92
<그림 53> ‘성읍마을’ ‘느티나무’ 안내판 .....	93
<그림 54> ‘성읍마을’ ‘할망당’ 안내판 .....	93
<그림 55> ‘성읍마을’ ‘고창환고택’ 안내판 .....	94
<그림 56> ‘성읍마을’ ‘서문 돌하르방’ 안내판 .....	94
<그림 57> ‘알뜨르비행장’ 상모리지역 해설안내판 .....	95
<그림 58> ‘알뜨르비행장’ ‘셋알오름’ 일제고사포진지 안내판1 .....	96
<그림 59> ‘알뜨르비행장’ ‘셋알오름’ 일제 고사포진지 안내판2 .....	96
<그림 60> ‘알뜨르비행장’ ‘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 .....	97
<그림 61> ‘알뜨르비행장’ 일제 지하병커 안내판 .....	97
<그림 62> ‘알뜨르비행장’ 일제 지하병커 애니메이션 안내판 .....	98

【국문초록】

제주도 문화재안내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산일출봉, 성읍마을, 알뜨르비행장 중심으로 -

현 동 학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

지도교수 김 은 석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문화재 안내판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제주형 안내판 모델 제시에 두고 있다.

어떤 고장을 방문했을 때 그 곳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매체가 안내판이다. 안내판은 그 지역의 자연·문화·지리·지질·생태뿐만 아니라 그 곳 주민들이 문화수준까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를 설명하는 문화재 안내판은 방문객이 그 곳의 문화재를 보는 창문이라 할 수 있다. 방문객은 그 고장의 문화재에 대하여 사전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는 창문이 세모이면 문화재가 세모로 보이고, 네모이면 네모로 보인다. 창문이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보일 것이고 파란색이면 파랗게 보일 것이다. 안내판은 관람객이 문화재를 감상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문화재 해설 안내판은 일정한 규칙을 따르면서 객관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작성자의 의도대로 주관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주도를 찾은 방문객들은 문화재 안내판을 외면해 왔고, 그 결과 제주도를 보고나서도 제주도를 모르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알맹이는 안보고 껍데기만 보고 돌아가는 게 지금까지의 제주도 여행이었다. 이러한 심각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안내판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자는 제주도의 문화재안내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제주도형 안내판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안내판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내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오랫동안 연구해 온 문화재청에서 제시하는 문화재안내판개선 5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문화재 안내판 개선 5원칙은 1. 디자인의 원칙, 2. 시스템의 원칙, 3. 경관의 원칙, 4. 정보전달의 원칙, 5. 효율성의 원칙이다. 이 원칙들은 기존의 안내판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면서도 표준이 되기는 하나 만능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이라는 상위부서에서 하달되는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일괄성과 효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지역적 특성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재안내판 분석에 문화재청의 5원칙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제주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었다.

제주도의 모든 문화재의 안내판을 조사·분석하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자는 제주도의 문화유적지 중에서 ‘성산일출봉’, ‘성읍마을’, ‘알뜨르비행장’을 선택하여 안내판을 분석하였다. 성산일출봉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유산이고, 한 해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가는 곳이다. 성읍마을은 제주도에 지금까지 남은 유일한 읍성이면서 많은 유·무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며 알뜨르비행장은 문화재의 가치도 높지만 제주도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장소이면서 도보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세 곳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곳이 지니는 문화재의 가치에 비하여 이를 해설하는 안내판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위 세 곳의 안내판을 조사한 다음 문화재청의 안내판 개선 5원칙에 근거하여 그 중에서 문제점이 중복되는 안내판을 5개씩 선별하여 이 논문에서 분석하였다.

안내판의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성산일출봉’ 안내판은 경관의 원칙과 정보전달의 원칙에 위배되어 있었다. 안내판이 관람객의 동선에 맞지 않았고, 수풀에 숨어버리던가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점은 안내판의 내용인데 대부분의 안내판이 전문가 수준의 지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파악하기 힘든 문안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성읍마을’ 안내판은 2018년에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설 문안에 문제가

많아 보였다. 특히 안내판의 보완매체라 할 수 있는 소책자와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었다. 안내판과 소책자의 내용이 달라서 안내판과 소책자의 정보 사이에 무엇이 사실인지 관람객은 혼동할 우려가 있다. 또한 안내판의 해설문안도 성읍마을의 정체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의 안내판개선 5원칙에 근거하여 ‘알뜨르비행장’의 안내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내판 해설에 객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안내판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사실성이다. 알뜨르비행장의 안내판에는 이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었다.

하지만 안내판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는 문제점이 있는 안내판만 발견 한 것은 아니다. 다행히 제주도만의 특성을 살린 안내판도 찾아 볼 수 있었다. 한 예로 성읍마을의 돌담을 지주대로 삼은 안내판은 성읍마을의 정체성을 살린 안내판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사례가 경관과 디자인을 살린 제주도형 안내판의 원칙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 안내문안도 이처럼 제주도의 정체성에 맞는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두면서 흥미를 줄 수 있는 해설 문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주도형 안내판 모델은 문화재청의 5원칙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상위부서의 전문성과 원칙을 따르면서 동시에 제주의 특색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연구자가 제시하는 이른바 제주형 안내판 모델이다.

주제어: 안내판, 정체성, 특수성, 안내판 개선 원칙, 제주도형 안내판 모델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7년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되면서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sup>1)</sup>.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도 제주도에 대한 자연, 문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종전의 경승지관광 및 단체관광객 중심의 여행패턴에서 개인이 관심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개별여행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에 국내외에서도 해당 문화재<sup>2)</sup>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매체로서 안내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내판의 실상은 그 중요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1980년~1990년대에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단순한 휴양지나 놀이공원을 연상시키는 수준의 관광지가 되어 버렸다<sup>3)</sup>. 이와 더불어 관광지나 문화를 설명하는 안내판 또한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안내판은 문화재 혹은 유산의 일부가 아닌 주변 시설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문화재의 부속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단순 시설물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안내판은 관람객이 문화재와 유산을 보는 창문이다. 안내판은 유산을 설명하는 정보전달의 매체 역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조력자 역할도 한다. 그러므로 안내판은 경관과 어우러진 디자인과 타 정보전달매체와 시스템적인 조합 그리고 안내판 설치 후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효율성까지 종합적으로

- 
- 1) 제주도는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등재된 곳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성산일출봉·거문오름·용암동굴계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10%를 차지한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u.go.kr) 검색일: 2020.05.01.
  - 2) 문화재는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산을 말하며 형태를 갖춘 유형의 유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술 활동이나 인류학적 유산도 포함한다. 문화재는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누어진다. 출처 문화재청(www.cha.go.kr) 검색일: 2020.05.01.
  - 3) 지난 1970년~80년대 제주관광은 관광단지 개발, 특급호텔의 개관, 항공기운항 등이 맞물려 '비행기를 타고 가 특급호텔에 머무는' 신희여행의 최적으로 각광 받았다. 출처: 제주신문(2015.03.03), 「중국인 신희관광객 꿈틀」, 검색 (www.jeupress.co.kr), 검색일: 2020.06.01.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성산일출봉, 성읍마을, 알뜨르비행장에 있는 다수의 안내판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내판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문화재안내판은 정보를 제공하는 단순한 시설물 기능을 넘어 방문자와 소통하는 매체로써 관람객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지역 이미지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안내판 개선작업은 단순히 문안이 바뀐 안내문을 교체하는 작업이 아니다. 이는 해당 문화재의 가치<sup>4)</sup>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이해시키는 양질의 정보전달이다. 그렇다면 안내판 개선의 주요과제는 무엇일까? 안내판은 문화재의 정보전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매체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안내판의 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재청에서 제시하는 안내판 개선방안의 가이드를 적용하여 제주도 문화재안내판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제주형 안내판의 모델을 마련해 보는 것이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다.

## 2. 연구방법 및 대상

문화재안내판은 단순히 안내시설물이라는 인식이 있다<sup>5)</sup>. 그래서 문화재안내판 개선이 필요한 경우 거시적 계획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안내판에 대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안내판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안내판은 해당 문화재와 디자인, 관계, 효율성, 시스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sup>6)</sup>. 또한 제주도를 찾는 내. 외

4)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문화재라는 용어보다 문화유산이 선호되고 있다. 이는 문화재라는 개념이 개별 자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문화유산은 한 사회의 공통적 자산이라는 성격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허권(2012), 「세계유산의 국제이해교육으로서의 가치」, 한국국제이해학회 7호.

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문화재보호법.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안내판이 공공디자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재에 대한 가치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문화재청은 2009년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부재와 안내판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지침부재, 안내판 설치과정의 시스템구축 미비를 문제점으로 보고 전국의 문화재 안내판을 체계적으로 개선 정비하기 위해 안내판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해마다 개정판을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면 전국적인 통일성은 보일 수 있으나 제주만의 특수성이 사라지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위한 연구 틀에서는 일차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그 다음 제주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sup>7)</sup>.

안내판의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안내판에 대한 디자인의 일관성이 없었다. 안내판의 규모가 일정하지 않고 너무 커서 경관을 가리는 안내판도 흔하고, 재질과 색상이 주위 경관과 문화재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또한 해설하는 유산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길도는 설명을 하는 안내판이 있는가 하면 안내판외의 다른 정보전달매체가 있음에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하나의 안내판에 과도한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정된 공간에 여러 개의 동일내용의 안내판이 경우가 있는 반면 다른 장소에 같은 내용의 안내판도 목격 되었고 외국어 표기에 있어서도 영어를 제외한 중국어, 일본어 번역을 하나의 안내판에 넣으면서 화면이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 안내판도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안내판의 내구성이 떨어져 글자나 그림이 지워진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경복궁을 비롯한 육지부 안내판의 획일적인 디자인이 제주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어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문화재청에서 제안하는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에서 제안 하는 5대 원칙과 제주도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항목을 나누어 분석틀을 만들었다.

6) 아릅지기(2008), 『궁궐의 안내판이 바뀐 사연』, 안그래픽스, p.21.

7) 문화재청은 2009년 안내판 개선 가이드라인으로 ① 디자인의 원칙 ② 시스템의 원칙 ③ 경관의 원칙 ④ 정보전달의 원칙 ⑤ 효율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제주도 환경의 특수성을 추가하였다.

<표 1> 안내판 분석틀

	분석항목	분석기준
1	디자인	크기, 모양, 색깔, 사진이나 그림첨부, 표기방식, 주위경관과 조화, 재질.
2	시스템	다른 안내매체와 연결성여부.
3	경관	안내판의 크기, 재질, 주위경관과 조화.
4	정보전달	단어의 쓰임, 문장의 길이, 정보의 정확성, 스토리텔링, 외국어표기, 문화재와 연관성.
5	효율성	접근성, 동선, 사후관리, 재질.

출처: 문화재청의 안내판가이드라인 5원칙(2016)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이 분석틀을 바탕으로 제주도 환경의 특수성을 추가하여 6가지 항목으로 연구 대상 안내판에 적용하였다.

- ①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곳의 안내판은 관람객들에게 문화재 및 유산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②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곳의 안내판은 관람객들의 효과적인 관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경관중심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 ③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곳의 안내판이 관람객과 문화유산 간의 공감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보전달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 ④ 설치된 안내판이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효율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 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곳의 안내판이 제주도의 특수성에 맞추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안내판 가이드라인 5대원칙 중 4번째 원칙인 ‘정보전달의 원칙’과 제주도환경의 특수성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그 이유는 조사 대상의 안내판에 나타난 오류 중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 정보전달의 원칙이었으며 육지부의 획일적인 안내판 디자인의 영향으로 제주도의 환경·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부기관의 일률적인 원칙을 모든 지역의 안내판에 일괄 적용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



문에 모든 안내판이 문화재청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조건하에 문화재청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 개선하는 것이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되므로 이 원칙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 연구를 실행하면서 제주도 전체 안내판을 조사, 연구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너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광범위하게 분포된 모든 안내판을 모두 조사하는 대신 ‘성산일출봉’, ‘성읍마을’, ‘알뜨르비행장’에 설치된 안내판을 선택하였다.

성산일출봉은 제주도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유산이며 대부분의 제주도 관광객의 표지를 장식하고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이 뿐만 아니라 수성화산활동으로 생겨난 화산 분화에 의해 오름이 탄생하는 과정은 물론, 오랜 세월을 두고 침식되어 가는 과정까지 보여주는 세계적인 화산지형이다. 게다가 화산분화로 만들어지는 퇴적지형을 화산체의 훼손 없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군의 군사기지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군진지동굴(등록문화재 제311호 제주 일출봉해안일제동굴진지)이 있는 곳이다. 또한 성산일출봉이 속한 성산리(城山里)는 제주도에 해녀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렇듯 성산일출봉은 자연유산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성산리 주민의 삶,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아픔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sup>8)</sup>.

제주가 근대화 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신작로가 뚫리면서 제주의 전통문화가 급속도로 사라졌다. 하지만 ‘성읍마을’은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고립되면서 전통문화가 보존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조선시대의 대정현과 함께 제주 산남의 읍치였던 정의현<sup>9)</sup>이었으며 유교와 함께 제주도의 민간신앙을 관에서 받아들인 곳이다. ‘성읍마을’은 1980년 제주도 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된 뒤, 1984년에는 중요 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되었다. 성읍마을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민속 문화의 보고이기도 하다.

‘알뜨르비행장’은 제주의 근·현대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간인 일제강점기 때 남겨진 근대문화유산이 많은 곳이며 일명 ‘올레꾼’<sup>10)</sup>이라 불리는 도보여

8) 성산일출봉 홍보관의 내용 중에서 요약.

9) 성읍민속마을의 조선시대 이름.

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이다. 1926년부터 1936년까지 일제는 알뜨르비행장을 건설했는데 초기 20만평 규모에서 세 차례에 걸친 확장공사로 1945년에는 67만평까지 늘어났다. 태평양전쟁 말 미국과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일본은 결7호 작전<sup>11)</sup>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였고 제주도는 작전 중에 한 곳이었다. 이곳에 격납고, 지하병커, 고사포진지, 알오름 거대 지하호, 탄약고등 다양한 군사시설이 들어섰다.

이와 함께 이 곳(성산일출봉, 성읍마을, 알뜨르비행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와 서귀포시청으로 관리주체가 명확하며 주기적으로 안내판 관리가 되는 곳이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안내판을 관리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것은 제주도내 대부분 관광지의 안내판이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이 연구에서 조사한 안내판의 결과를 제주도 전역의 안내판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곳에 설치된 안내판은 총 85개가 있었고 그 중에서 해설안내판은 52개였다. 성산일출봉의 안내판은 총33개 중 해설안내판은 15개, 나머지 18개 안내판은 경고, 방향, 지시 안내판이었다. 성읍마을 안내판은 총 24개의 안내판 중 해설안내판이 18개 경고, 방향, 지시 안내판이 6개였다. 알뜨르비행장 안내판은 총 28개 중 해설안내판이 19개 경고, 방향, 지시 안내판이 9개였다. 이 연구에서 집중 조사한 안내판은 해설안내판이기 때문에 52개의 해설안내판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중 같은 유형 혹은 내용의 안내판을 제외하고 각각 5기씩 15개의 안내판을 이 논문에 게재하였고, 다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나머지 안내판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10) '올레'의 정의: 제주에 있는 거리에서 집으로 연결된 긴 골목 『제주의 민속』(제주도,1996). '올레꾼'이란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관리하는 제주도의 트레일을 걷는 도보 여행자이다.

11) 일제는 홋카이도와 제주도를 미군의 가장 유력한 상륙 예정지로 판단하여 '결1호작전(홋카이도)과 결7호(제주도)'를 보다 무게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12, p.331.

## II.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 1. 안내판의 기능 및 종류

#### 1) 안내판의 기능

문화유산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안내판의 기능에 가장 의존하는 사람은 그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해당 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낯선 곳에서 온 여행객이다. 그러기 때문에 안내판은 문화재에 대한 정보가 없는 여행객이 올바르게 관람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창문’ 기능을 해야 한다. 안내판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안내판의 정보제공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관람객은 문화재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다<sup>12)</sup>. 즉 안내판이 제 기능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관람객이 요구하는 정보와 데이터, 이야기 등 다양한 욕구를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안내판은 정보제공 기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공디자인에 대한 중요성과 발맞춰 문화재와 어우러지는 디자인, 시스템, 경관과의 조화, 효율성의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sup>13)</sup>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안내판의 가장 큰 기능은 무엇보다도 문화재의 정보를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에 문화유산 해설에 있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원칙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원칙을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sup>14)</sup>현장의 ‘해설과 전달’(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에서 찾아보았다.

ICOMOS현장에 의한 ‘해설’의 정의는 문화유적지에 대한 공공의 인식과 이해를 증대시키는 기획과 연구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오프라인뿐만

12)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관광지의 안내판과 안내방송에도 그 당시 시대상황과 작성자의 의도를 품은 오류가 적지 않다” (박종인, 『땅의 역사』, 상상출판, 2018).

13) 공공디자인의 사전적 정의는 ‘공공장소의 여러 장비와 장치를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이다. 아름답기, 앞의 책, p.21.

14)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국제적인 문화재를 보호, 보존하기 위해 세워져 세계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 자문기관으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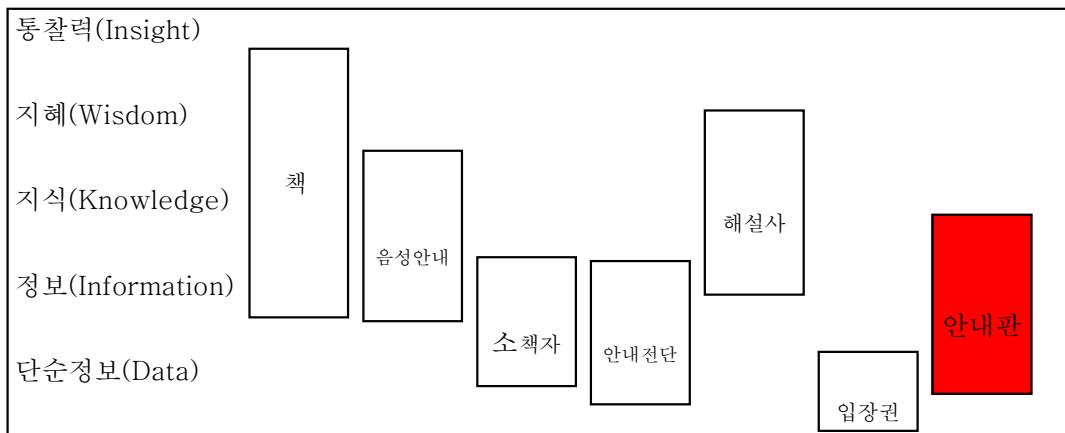
아니라 출판, 강연, 현장, 혹은 시설의 설치, 교육, 지역주민활동, 연구, 훈련과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전달’이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해설할 대상이 정보, 물리적 접근, 해설기반 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여 해설된 콘텐츠를 가지고 관람객과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sup>15)</sup>

여기서 ICOMOS는 ‘해설과 전달’에 관하여 7가지 원칙을 두었는데 이는 ‘접근성과 이해’ ‘정보의 출처’ ‘배경과 맥락의 고려’ ‘진정성의 유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계획’ ‘노력, 연구, 교육 훈련, 평가의 중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문화유적에 대한 ‘해설과 전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ICOMOS현장에서 제시하는 ‘해설과 전달’은 안내판의 기능과 연관 지을 수 있으며 이러한 안내판의 기능은 타 전달매체와 함께 기능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관람객이 문화유적지에서 얻고자 하는 해설콘텐츠 범위는 단순정보(Data)에서 통찰력(Insight)까지 범위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안내판해설을 보완할 수 있는 타 해설매체의 콘텐츠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도 안내판의 기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하다.

<그림 1> 각 해설매체의 콘텐츠범위



출처: 문화재청(2008)을 연구자가 재구성

이 연구를 통하여 바라보는 안내판의 정보범위는 단순정보(Data)에서 지식(Knowledge)까지이다. 안내판은 한정된 지면과 독자의 흥미를 되도록 빨리 끌어

15) 문화유산의 해설과 전달에 관한 ICOMOS현장 내용.

야 하기 때문에 안내판에 쓸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즉 안내판과 문화재의 정보를 전달할 기타 안내매체들 사이에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sup>16)</sup>

문화재를 해설하는 여러 안내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판은 타 안내 매체와 비교해서 몇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장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McIntosh. 1982)

<표 2> 타 안내매체와 비교한 안내판의 장점

구분	대표적 장점 내용
1	항상 그 자리에 있다
2	독자가 읽는 속도에 맞춰진다.
3	설치비용이 기타 안내 매체에 비하여 저렴하다
4	사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마치 사진작가와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5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다.
6	잘 설계되고 제작되었다면,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이 낮다.

출처: McIntosh(1982)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안내판 단독으로는 정보전달의 효율성이 낮다. 그러므로 안내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계된 안내매체가 각기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 2) 안내판의 종류

문화유적지를 찾는 사람들은 문화재의 정보나 역사 및 이야기 외에도 수많은 정보를 요구한다. 관람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콘텐츠는 크게 길 찾기, 문화재 이야기, 문화재 관리, 운영, 정보이다. 안내판의 콘텐츠를 제대로 구성하고 정보 전달매체의 위계를 잡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콘텐츠의 분류는 바로 안내판 체계로 연결 될 수 있다. 만

16) 아름지기, 앞의 책, p.73.

약 관람객이 요구하는 콘텐츠가 ‘길 찾기 정보’, ‘이야기 정보’, ‘관리. 운영’ 정보 같지 세 갈래이면 안내판의 종류도 이에 맞게 세 종류로 나누어 저야 한다.

<그림2> 안내판의 콘텐츠분류



출처: 문화재청(www.cha.go.kr)을 연구자가 재구성

안내판 콘텐츠 분류를 살펴보면 첫째, 길 찾기 정보는 관람객이 관람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본적인 동선을 제시한다. 이후 지속적인 관람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이야기 정보는 역사적 일화나 문화재를 소개하는 내용과 함께 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설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관리. 운영 정보는 관람객들이 방문을 계획하고 입장하는 단계에서 많이 요구 하는데 주로 관람시간이나 화장실의 위치 등을 제공한다.

관람객이 문화유적지를 관람할 때 관람시작부터 관람종료까지 시간별로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조사(경복궁과 창덕궁의 경우)한 내용을 보면 관람시작 후 초기에는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정보는 관리. 운영정보이고, 그 다음 이야기 정보, 길 찾기 정보 순 이었다. 하지만 관람시간이 흐르면서 관람종료가 될 무렵에는 길 찾기 정보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그 다음 이야기 정보, 마지막으로 관리. 운영정보를 요구하였다<sup>17)</sup>. 이는 안내판에 들어갈 정보는 안내판의 종류에 따라 달라야 하며 또 관람객의 동선과 안내판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송종은·송형섭(2002)은 외국의 기타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안내판 디자인 및 해설로 안내판 조성을 위한 기법을 제공하는 한편 이론 체계 확립을 시

17) 위의 책, p.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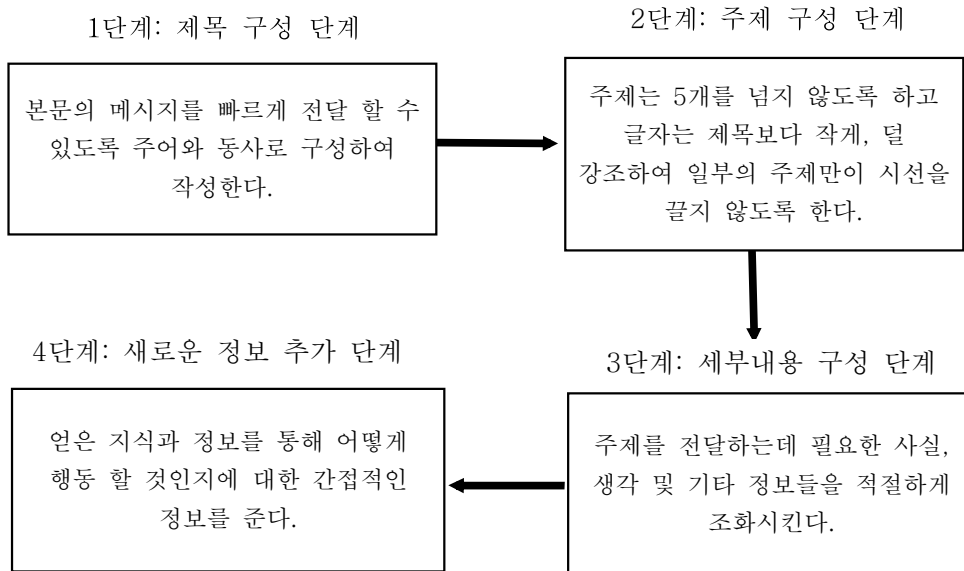
도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안내판 설계의 A, B, C 원칙과, 안내판 주제 구성의 4단계를 소개했다<sup>18)</sup>.

<표 3> 안내판설계의 A·B·C

구분	내 용
매력성 (Attractive)	흥미 있는 내용을 적절한 색채를 활용하여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해야 한다.
간결성 (Brief)	전달하는 메시지는 5개 이하의 주제로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명료성 (Clear)	1~2초 내에 주제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게 내용을 서술한다.

출처: 송중은, 송형섭(2008)의 안내판설계 A·B·C를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3> 안내판 주제 구성의 4단계



출처: 송중은, 송형섭(2002) 연구자가 재구성

18) 송중은·송형섭(2002), 「홍릉수목원을 중심으로」, 『자기안내식 환경해설판의 기능효과 분석』, 산림휴양 원연구, pp.742-749.

콘텐츠를 분류하고 안내판설계와 주제구성을 마치면 안내판을 역할 별 종류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아래 <표 4>에서 보듯이 안내판의 종류는 크게 해설안내판과 기능성안내판으로 구분된다. 해설안내판은 다시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으로 분류된다. 문화재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중 1개 이상의 안내판은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능성안내판은 길 찾기 안내판, 금지안내판, 정보알림판, 공공 사인 물, 임시안내판으로 분류된다.<sup>19)</sup>

<표 4> 안내판의 분류와 설치기준

분류	세분류	설치기준
해설안내판	종합안내판	면단위 문화재로서 유적지에 다수의 건조물 또는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경우 설치
	권역안내판	유적지 내에 다수의 건조물 또는 문화재가 존재하고 통합하여 안내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설치
	개별안내판	특별한 이야기가 있거나 권역 내에 포함되지 못한 문화재가 있는 경우 설치
기능성안내판	길찾기안내판	동선을 유도하는 지점과 편의시설 안내, 권역과 권역을 이어주는 지점 등에 설치
	금지안내판	출입이나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알림판
	정보알림판	유적지내 각종 행사나 공지사항 등 알림판
	공공사인물	픽토그램 등 각종 공공안내 사인들
	임시안내판	공사 중이나 특별 행사 등을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안내판

출처: 문화재청(2008)을 연구자가 재구성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문화재안내판 중에서 해설안내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기능성안내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생략하였다.

19) 문화재청(2008),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p.19.



## 2. 안내판 개선 원칙

문화재청에서 5가지 안내판의 개선원칙을 제안하였다. 디자인, 시스템, 경관중심, 정보전달, 그리고 효율성의 원칙이다. 안내판의 개선원칙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안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급기관인 문화재청과 지방정부간의 소통이 부족하여 문화재청의 제안을 따르지 않기도 하지만 무비판적으로 일괄 적용을 하면 지방의 특수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제안하는 원칙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이 연구는 문화재청에서 제안하는 안내판 개선원칙을 무조건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제주도 문화재 안내판에 적용해 보면서 제주형 안내판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 1) 디자인의 원칙

건축물의 내부 안내판에 대한 필요성과 디자인은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반면, 외부 안내판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외부 안내판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외부 안내판은 단지 외부 시설물의 하나로만 취급하고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는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sup>20)</sup>.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개념의 도입은 편협한 사전적 개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공공디자인을 실질적인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편협한 사전적 개념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디자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디자인은 여러 분야의 협업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는 대중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대상을 디자인 하는 것이고, 마을이나 도시 등 비교적 면적이 넓은 대상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 도시, 조경, 시각디자인은 물론 지리학, 인류학, 역사학 등 인문

20) 공공디자인의 사전적 정의는 ‘공공장소의 여러 장비와 장치를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법 초안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디자인’이라 정의 되어 있다. 아름지기(2008), 『공공디자인의 안내판이 바뀐 사연』, p.21.

학적 접근도 필요하다<sup>21)</sup>.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다. 세련되고 획기적인 디자인을 도시에만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풍스럽고 전통미가 느껴지는 문화재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도 공공디자인의 또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문화재안내판이 기능적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제는 단순한 기능의 범위를 벗어나 미적인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재안내판을 설치해야한다<sup>22)</sup>.

문화재를 해설하는 안내판을 보면 문화재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안내판을 볼 수 있다. 이는 의미 없는 모방이며 조작성만 부각 시킬 뿐이다. 그리고 관람객으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 이는 문화재와 어울리는 안내판이 아니라 문화재의 품위를 깎아 내리는 안내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안내판은 현대적인 시설물의 디자인 원칙을 ‘주위 환경과 어울리게 하되 실제 유적과 명확히 구분되는 재료 혹은 형태로 디자인 하며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형태로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sup>23)</sup>.

또한 문화재 안내판은 관람객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문화유적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며 문화유적지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광 사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안내판을 중심으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정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바탕으로 안내판이 설치되면 안내판 자체가 하나의 랜드마크형 관광자원으로 활용 될 수 있다<sup>24)</sup>.

이런 차원에서 문화재청은 안내판 디자인을 개선함에 있어 특정한 기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안내판이 문화재의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전체 디자인 시스템에서 일관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 재차 설명하고 있다<sup>25)</sup>.

---

21) 아름지기, 앞의 책, p.37.

22) 강경환(2008), 『궁궐의 안내판이 바뀐 사연』, p.35.

23) 199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4회 근대건축국제대회(CIAM)의 결론인 아테네 현장 제70항에서 언급된 것이다. 위의 책, pp.55-56.

24) 임현혁·문형식·김주형(2013), 「영월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관광안내판 디자인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p.13.

25) 문화재청(2008), 앞의 책.

<표 5> 디자인 개선 원칙

구분	기준 원칙 내용
1	주변 환경과 조화.
2	문화재의 역사성, 특성과 조화.
3	미적 감각을 고려하여 형태는 단순하게, 친환경적인 소재사용.
4	표시요소는 간결하게, 레이아웃은 명확하게.

출처: 문화재청(2008)을 연구자가 재구성

지역 특색과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적인 소재를 안내판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연구 대상에 포함된 성읍마을의 안내판인 경우 해설이 들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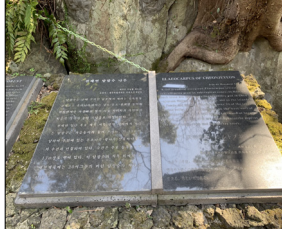
<그림 4> 성읍마을 근민헌안내판



패널부분은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금속재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제주 돌담을 모티프로 한 인공 돌담을 만들어 패널을 덧붙였다. 안내판의 디자인이 화려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특수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문화재 관람 및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소재를 선택해야 하고 대상 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 환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해야한다’라는 문화재청의 제안에도 부합된다.

안내판의 소재를 살펴보면 크게 목재, 비철금속, 석재가 많이 쓰인다. 소재별로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예전에는 목재가 많이 쓰이다가 현재는 대부분 비철금속으로 바뀌었다. 이는 디자인이 편하고 관리하기가 용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같은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혹은 문화재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아래 <표 7>은 안내판의 주 소재인 목재, 비철금속, 석재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였다.

<표 6> 안내판 소재별 특징

재질	장점	단점	예
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스러움</li> <li>● 다른 소재보다 제작비가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조하면 수축하여 균열이 생기거나 뒤틀릴 수 있음</li> </ul>	
비철금속 (두랄미늄, 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환경에 맞는 형태로 디자인이 용이함</li> <li>● 내용 표기가 쉬우며 가독성이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이 슬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li> <li>● 부분 교체가 어려움</li> <li>● 제작 단가가 높음</li> </ul>	
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가 쉬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표기가 어려움</li> <li>● 부피감이 있어 안내판이 부각될 수 있음</li> <li>● 제작 단가가 높음</li> </ul>	

출처: 서울시 지정문화재 안내판 현황 및 관리에 관한연구(2015)를 연구자가 재구성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디자인의 원칙을 정리하자면 디자인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바탕으로 안내판을 디자인 하되 문화재보다 부각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에서 일관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준 원칙에 따라야 한다. 또한 안내판은 화려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안내판의 소재선택에 유념해야 한다.

## 2) 시스템의 원칙

문화재의 해설매체 종류에는 안내판을 기본으로 소책자, 해설사, 음성안내, QR 코드, 책 등이 있다. 이들의 역할은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이러한 해설매체를 통하여 방문객들은 문화재에 대한 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매체에 의한 문화재 해설은 관람객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기억과 경험의 만족,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 중 하나이다(Hems, 2006). 다양한 해설매체의 기능을 바탕으로 문화유산해설을 할 경우 관람객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전달매체간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sup>26)</sup>.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문화유적지의 안내판시스템은 문화재 구역 내 정보 안내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정보매체와 연계하여 안내판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관람객이 하나의 안내판을 읽는 시간은 약 20~30초 정도이다. 안내판을 제작할 때 관람객들이 안내판을 읽는 시간을 고려하면 안내판의 크기와 정보의 양을 한정 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판 하나에 모든 정보를 담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문화재해설에 있어서 다른 정보전달매체와 기능과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보전달매체간의 콘텐츠 위계를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된 정보 전달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안내 체계를 구축하면서 해설 매체간의 시스템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안내판 시스템의 원칙에 대하여 3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표 7> 안내판의 시스템 원칙

구분	시스템원칙 내용
1	안내판은 모든 정보를 전달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2	다른 매체들과 기능 및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3	안내판 기능에 따른 통합 시스템 디자인을 따라야 한다.

출처: 문화재청(2008)을 연구자가 재구성

과거 문화재해설은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이용한 인적 방법 혹은 안내판과 같은 비(非) 인적 방법으로 관광객에게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관람객들은 전자 기기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내 손안의 덕수궁’이라는 문화재청의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는 스마트폰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관람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또 다른 문화재해설 전달 매체이다<sup>27)</sup>. 이렇듯 문화재 안내에 대한 중요성이

26) 시스템이란 하나의 공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화된 요소들의 집합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출처 : 텀스(www.terms.co.kr) (검색일 2020. 5. 20.)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문화유적지에서는 다양한 해설 매체 방식을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를 해설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8)</sup>

### 3) 경관의 원칙

사전적 의미의 ‘경관’(景觀)이란 일정 지역의 고유의 외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바닷가에 섬이라는 경관이 있으면 섬 하나만 딱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섬을 포함하여 나무, 바위, 방파제, 심지어는 지나가는 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즉 경관이란 하나의 개별요소가 아니라 인간과 결합되어 있는 일체성이 있는 외관을 말한다. 이를 포괄적으로 ‘느끼는 환경’이라 한다<sup>29)</sup>.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경관이란 대상 자체가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관람객이 주관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야 되는 것이다.

안내판에서 경관의 원칙에서 중요한 부분은 안내판 설치위치이다. 안내판은 문화재를 직접 가리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고 관람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동선과 연계하여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의 위치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단, 건물의 관람행위에 해가 될 때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sup>30)</sup>.

<그림 5> 천제연폭포 입구의 경관을 해치는 안내판들



27) 문화재청은 ‘내 손안의 덕수궁’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덕수궁 실감 콘텐츠 ‘AR덕수궁’을 시범운영한다고 2020년3월24일 밝혔다. 출처: 매일경제(2020.03.24.), (검색일: 2020.5.20.).  
 28) 김주연·홍성주, 「세계문화유산 화성행궁 내 관광안내판 보완수단으로서 이동식 안내판 적용」, 『여가관광연구』, 제25호, 2016.6, p.58.  
 29) 경관법과 경관계획(2008), (www.kolanco.or.kr), (검색일: 2020.05.25.).  
 30) 문화재청(2008), 앞의 책, p.21.

<그림5>은 제주도 천제연폭포 매표소에서 출발하여 제1폭포 입구까지 약 70m 내에 설치된 안내판들인데 여기에는 총 13개의 알림. 금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 안내판들은 전형적으로 경관을 해치는 안내판들이라 할 수 있다. 아래<표 8>은 문화재청에서 제안한 4가지 경관의 원칙이다.

<표 8> 안내판의 경관의 원칙

구분	경관의 원칙 내용
1	현장에 대한 철조한 이해와 분석.
2	통상 1문화재 1안내판을 설치하던 관례에서 탈피.
3	문화재 관람이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내판의 크기 및 설치위치 선정.
4	안내판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인식

출처: 문화재청(2008)을 연구자가 재구성

공공시설의 기능안내판과 문화유적의 해설안내판은 설치하는 위치부분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문화유적지의 해설안내판은 눈에 잘 띄고 정보를 숙지시키는 기능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찾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 문화재에서 문화유적지의 주변 경관까지가 문화재의 한 요소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림 6>는 바르셀로나에서 유명한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방경 100m이내에 단 하나의 안내판만 세워져 있다. 안내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안내판의 재질은 방수 처리된 목재이며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게 제작되었다. 안내판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 4) 정보전달의 원칙

안내판내용은 안내판의 구성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람객으로 하여금 문화재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동기를 유발 시켜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제시하는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에서도 정보전달 원칙 부분에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핵심내용을 아래 <표 9>에 정리하였다.

<표 9> 정보전달 원칙의 핵심내용

분류	원칙 내용
내용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 사실을 핵심 정보 위주로 전달한다.</li> <li>•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li> <li>• 문화재의 기능, 유래, 특징,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등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를 설명한다.</li> <li>• 문화재와 관련된 설화, 전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li> <li>•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단 꼭 필요한 경우 앞에서 풀이하여 설명한 다음 적는다.</li> <li>• 문화재 설명이 아닌 것은 쓰지 않는다.</li> </ul>
형식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되, 안내판 디자인과 구성 배열에 잘 맞게 한다.</li> <li>•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문장 순서를 정한다.</li> <li>• 문화재의 형태,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거나 최소화한다.</li> <li>• 작성한 최종 국문 안내문은 국립국어원과 국어문화원의 감수를 받는다.</li> <li>• 문안은 2개 국어(국/영)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외국어는 소책자 등 타 매체로 대처한다.</li> </ul>

문화재청(2008), 『문화재 안내문 작성 키포인트』, p.11-15.을 연구자가 재구성



위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판의 설계도를 만들 수 있다. 안내판의 화면은 구성요소와 세부내용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성요소는 ‘제목’, ‘본문’, ‘영문’등 기본적으로 3 파트로 나누어지고 세부내용은 구성요소를 채워주는 내용으로 해설 문안을 국문과 영문으로 넣어주면 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0> 문화재 해설안내판 화면 구성

구성요소	세부내용
제목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문, 한자, 영문 명칭</li> <li>•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그리고 영문번역</li> </ul>
국문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의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풀이</li> <li>•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li> <li>•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li> <li>• 관련 설화, 전설, 민담, 등 스토리텔링</li> <li>• 주요 관람 포인트</li> <li>•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li> </ul>
영문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li> </ul>

출처: 문화재청(2008), 『문화재 안내문 작성 매뉴얼』을 연구자가 재구성

위의 핵심내용을 보충하자면 여러 사람이 공감하고 관람자가 문화재에 좀 더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이면 주관적인 내용도 덧붙일 수 있다고 제안 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공인해야 할 경우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과 문화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우선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학습 목적의 전문적 지식을 전달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소책자 등 기타 정보전달매체를 통하여 보완해야 한다. 또한 다른 매체와 역할분담과 연계활용을 고려하여 안내판에는 기본적인 정보위주로 작성하되 관람자의 이해와 흥미유발을 위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을 가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보 중심의 콘텐츠보다 스토리텔링, 만화, 사진을 사용한 픽토그램<sup>31)</sup> 등을 사용한 방

31) 그림문자(pictogram) ‘그림’ 과 ‘전달’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표의문자’이다. 출처: 위키 백과, (검색일: 2020.05.27.)

식들이 관람객의 흥미를 끌기 쉽고 정보 전달에 있어서도 효과가 크다고 한다 (전경수, 1988). 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만화나 사진을 이용하여 안내판을 만들 경우 사이즈가 과도하게 커져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만화안내판인 경우 내용문구에 작성자의 주관이 일반 안내판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내판이 완성되고 설치 전에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지역주민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것을 문화재청에서는 제안하고 있다.

<표 11> 안내문안 지역주민 참여방법 및 검토사항

참여방법	안내문안 작성 시 참여하거나, 작성된 안내 문안에 대한 검토
검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 문안에 지나치게 많은 문화재 전문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이 많이 사용되었는가?</li> <li>●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li> <li>●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설 문안이 만들어 졌는가?</li> <li>● 문화재가 만들어진 배경, 용도나 유래 등 문화재에 대해 이해가 되었는가?</li> <li>● 그림이나 이미지가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li> </ul>

출처: 문화재청(2008), 「안내판문안작성 가이드라인」을 연구자가 재구성

문화재를 접하는 외국인들은 제주도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문 안내판을 작성 할 때 국어문안을 그대로 직역하지 말고 적절한 의역과 함께 그들의 수준과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문화재 설명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즉, 안내판의 영문 작성 시 국어문안을 그대로 직역하지 말고 적절한 의역을 실시해야 한다.

##### 5) 효율성의 원칙

경영학 용어로 효율성이란 달성된 경과와 사용된 자원의 관계, 즉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정된 자원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

를 거두는 것이다. 이를 안내판에 적용해 보면 효율성이란 디자인, 시스템, 경관, 정보전달의 원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안내판이 설치된 후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용이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효율성이 높은 안내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재질로 안내판을 만들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안내판의 재질에 따라서 디자인, 안내문구의 폰트, 경관에 따른 안내판의 위치 선정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 대상이 된 안내판은 모두 금속재질의 안내판이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재 해설 안내판은 대부분 금속재질의 안내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성은 있으나 지역적, 문화재적 특성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일괄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금속안내판인 경우 재질의 부식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근래에는 부식에 강한 듀라니움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 부식을 늦추고 있다. 하지만 이도 오랜 시간 야외에 방치하면 부식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볼 때 목재재질이 안내판 보다 효율적인 안내판 재질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금속재질의 안내판이 전국적으로 유행함으로서 안내판의 지역적 특색이 없다는 것이다. 마치 경북궁의 해설안내판이 문구만 바꿔 성읍마을에 옮겨놓은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부분은 한문화재의 성격이 전혀 다른 알뜨르비행장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안내판이 발견된다.

목재안내판인 경우 이 연구 대상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차 후 디자인과 경관의 원칙을 따르면서 서서히 교체되거나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예를 들어 성읍마을에 있는 가옥들의 주 재질은 돌과 나무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이질적인 금속보다 돌과 나무를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안내판을 설치하면 좀 더 성읍마을의 정체성에 부합 할 수 있다.

하지만 목재안내판인 경우 금속 같은 무기질 재료와 달라서 유기질이기에 때문에 생물 균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쉽게 말하자면 관리가 소홀하면 썩는다는 말이다. 또한 금속 안내판보다 내구성이 약하다.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작 전에 방충 및 방부처리를 실시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염 처리 같은 사전 예방조치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sup>32)</sup>.

32) 『 목재문화재 보존』, 국립문화재연구소(2010), pp.12-13.

안내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내판을 단순히 설치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관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설치, 관리, 교체에 관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변진숙 2015). 효율성의 원칙은 안내판의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디자인, 시스템, 경관, 정보전달 4가지 원칙 모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 Ⅲ. 제주도 문화재안내판 현황과 문제점

#### 1. '성산일출봉' 안내판 현황과 문제점

##### 1) '성산일출봉' 안내판 현황

이 연구를 위하여 '성산일출봉' 내의 15개의 해설안내판을 조사하였고 5개의 안내판을 선별하여 현황을 밝히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성산일출봉에 설치된 해설안내판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 주관하고 마을의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하였다. 2015년에 안내판 개선이 있었고, 2017년에 홍보관이 개관하면서 다시 5개의 안내판이 홍보관 옆에 추가 설치되었다. 입구 쪽에 있는 종합안내판은 2019년에 새로 설치되었다.

성산일출봉의 안내매체 종류에는 입장권, 안내판, 해설사, 그리고 홍보관이 있다. 성산일출봉에 속해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일반적으로 성산일출봉 정상에서 해설을 하며 관람객이 관광과 더불어 설명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보통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해설을 해주고 있었다. 홍보관은 성산일출봉의 형성과정을 위주로 설명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도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홍보관 입구에는 성산일출봉의 개괄을 설명하는 5개의 안내판이 나란히 액자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 성산일출봉의 형성과정, 성산일출봉이름의 유래, 성산일출봉의 역사, 성산리 해녀의 삶, 그리고 성산일출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해설 안내판 모두가 한국어 외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 해설되어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성산일출봉에 있는 15개의 해설안내판을 조사하였다. 그 중에 안내판개선의 5원칙에 위배되면서 오류가 많은 안내판 5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나머지 안내판들도 오류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충분히 5개의 안내판만으로 나머지 안내판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생략하였다.

2) '성산일출봉' 안내판의 문제점

<그림 7, 7-1> 홍보관 옆 '성산일출봉'안내판



<안내판내용>33)

**성산리의 축제**

*Festival in Seongsan-ri*

**성산일출제**

1994년에 시작되어 매해 12월31일부터 다음해 1월1일까지 치러지는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축제 이름 그대로 '성산에서 맞이하는 일출', 곧 해 뜨는 광경을 함께 하는 것이다.

성산일출제는 거리행렬, 일출기원 해맞이 행사, 불꽃놀이, 모닥불 점화행사, 추위 대왕 선발대회, 일출봉 등장, 올레시민의 노래, 해맞이 축하공연, 새해 메시지 전달,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레이저 아트쇼, 지질 트레일 체험, 지역 한마당 축제 및 일출 페스티벌, 지역 문화동아리 및 초어공연, 달 집태우기, 금줄커팅, 전통혼례 체험, 지역특산물 시식회, 감귤요리 만들기, 소망우체국 운영, 야광 페이스페인팅, 빙떡 만들어 먹기, 떡국 나눔 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새해 알림과 동시에 불꽃이 솟아올라 연달아 터지는 장면은 마치 화산 이 폭발하는 듯해 감탄과 환호의 시간을 선사해 준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설 첨부되어 있음.

출처: 성산일출봉안내판<사진7-1> 내용을 제외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성산일출봉안내판<그림 7, 7-1>은 성산일출봉에 대한 개괄 설명을 하는 5개의

33) 이 연구에서 분석한 성산일출봉, 성읍마을, 알뜨르비행장의 <안내판내용>은 사진만으로는 내용식별이 어려운 관계로 국문안내판 문안을 연구자 재구성 없이 게재하였다.

안내판 중에 1개로서 성산일출봉의 축제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안내판은 2017년도에 홍보관이 개관하면서 설치되었다. 현무암 블록으로 만들어진 벽에 안내판이 액자 식으로 걸려 있어 방문객들이 오고 가면서 읽을 수 있게 설치되어 있다. 안내판제목이 **‘성산리의 축제’**인데 이에 맞게 화려한 사진이 안내판에 첨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내판에는 정보전달과 효율성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① 안내판의 제목이 **‘성산일출제’**임에도 불구하고 안내판문안에 일출제에 대한 의미나 전통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다.
- ② 단어의 난이도는 일반인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쓰여 있지만 문장의 길이가 문화재청에서 제안하는 원칙보다 길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 ③ 일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실하고 일출제행사의 종류만 총 아홉 줄의 안내문안 중에 셋째 줄부터 여덟째 줄까지 나열하고 있다.
- ④ 안내문안 서두에 **‘1994년부터 행사가 시작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 ⑤ 축제의 의의가 해 뜨는 광경을 함께 하는 것만은 아닐 텐데 그 외의 설명도 들어 있지 않다.
- ⑥ 해설 마지막 문장 **‘특히 새해 알림과 동시에 불꽃이 솟아올라 연달아 터지는 장면은 마치 화산 이 폭발하는 듯해 감탄과 환호의 시간을 선사해 준다’** 은 해설이 아니라 마치 홍보의 한 문장 같다.
- ⑦ 만일 성산일출제에 대한 관심을 가진 관람객이 보완설명을 원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책자나 QR코드 같은 보완매체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 ⑧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 안내판화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보도 빈약하다.
- ⑨ **‘해당 문화재가 아니면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문화재청이 제안한 안내판가이드라인<정보전달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만일 안내판<그림 5>이 홍보 판이면 알림을 게시하고 주관까지 밝혀야 한다.

<그림 8, 8-1> 성산일출봉 종합안내판



<안내판내용>

**성산일출봉**

**해 뜨는 오름으로 불리는 성산일출봉은 약 5~7천 년 전 얇은 수심의 해저에서 수성화산분출에 의해 형성된 응회구이다**

**일출봉은 높이 약 180m로 제주도의 동쪽해안에서 거대한 고성처럼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절벽을 따라 다양한 내부구조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어 전 세계 수성화산의 분출과 퇴적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성산일출봉은 이러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20호와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설 첨부되어 있음.**

출처: 성산일출봉안내판<그림 8-1> 내용을 제외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안내판<그림 8, 8-1>은 2019년도에 설치된 성산일출봉의 종합안내판이다. 화면 왼쪽에 전체 조감도와 함께 해당 위치 이름을 도표 안에 넣어 놓았다. 안내문구의 주된 내용은 성산일출봉에 대한 개괄 설명이며 사진과 함께 개별 문화재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안내판은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눕히는 등 많은 심려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정보전달, 효율성 부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① 펜스가 안내판 앞에 놓여 있어 관람객들의 접근이 불편하다
- ② 종합안내판에 QR코드나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관람객은 성산일출봉의 개괄 정보를 전적으로 종합안내판에 의존해야 한다.
- ③ 안내판<그림 8-1>의 한글 해설은 총 7줄 3문장으로 이루어 졌으며 안내판 내용은 읽기에 불편함이 없다 하지만 내용에 ‘수성화산’ 응회구‘같은 지질전문 용어가 주석 없이 포함되어 있어 지질에 관한 지식이 없는 관람객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안내판 내용 중에 **‘다양한 내부구조를 훌륭히 보여 준다’**라는 문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다양한 내부구조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관람객에게 혼란을 준다.
- ④ 안내판의 재질이 금속에 필름을 입힌 형태라 사후 관리가 용이할 수 있겠지만 품위가 떨어지고 자주 바뀌야 한다. 이는 성산일출봉내에 있는 모든 안내판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안내판<그림 8, 8-1>은 안내판 중에 가장 중요한 종합안내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내용이 빈약하고 관람객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9, 9-1, 9-2> 정상에 설치된 성산일출봉 안내판

<그림 9>안내판 경관	<그림 9-1>안내판 내용	<그림9-2>보조그림
		
<p>찍은 날짜.2020.4.30</p>	<p>찍은 날짜.2020.4.30</p>	<p>찍은 날짜.2020.4.30</p>

<안내판내용>

**성산일출봉 응회구의 분출작용.**

**성산일출봉 응회구 하부에는 물을 매우 잘 통과시키는 용암이 놓여있다. 약 오천년 전, 상승하던 마그마가 용암층 내에 포함된 지하수와 반응하여 강력한 수성 분출이 일어났다. 지하수가 용암을 통해 끊임없이 화도로 공급되어 분출이 끝날 때 까지 수성 분출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일출봉의 분화구는 분석(일명'송이')이나 용암으로 채워지지 않고 현재와 같이 사발모양으로 남게 되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설 첨부되어 있음.**

출처: 성산일출봉안내판<그림 9-1> 내용을 제외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성산일출봉안내판<그림 9, 9-1, 9-2>은 성산일출봉 정상에 설치된 해설안내판으로서 모양은 직사각형이며 재질은 다른 안내판과 마찬가지로 금속패널에 필름을 입힌 안내판이다. 안내판의 설치주체, 설치시기, 교체주기도 성산일출봉의 다른 안내판 동일하다. 안내판패널의 색깔은 짙은 고동색바탕에 흰색의 글씨를 입혔는데 기타 성산일출봉해설 안내판과 통일성을 이룬 모습을 보였다. 이 안내판은 성산일출봉의 지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안내판내용 오른쪽에 화산 분출하는 참조 그림이 두 개 첨부되어 있다. 안내판이 분화구 안쪽 펜스 넘어 있어 수풀에 가려있다. 정상에 해설사가 관람객의 요청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해설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내판의 중요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 안내판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 ① 성산일출봉의 하이라이트인 분화구정상에 설치된 해설안내판이기 때문에 성산일출봉내의 해설안내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내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안내판이 펜스 뒤쪽에 설치되어 있고 안내판패널이 짙은 밤색이라 수목에 쉽게 가려지기 때문에 관람객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 ② 해설사가 관람객의 요청이 있을 때 마다 주기적으로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QR코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설사가 없는 경우 안내판의 내용을 보완해줄 수 있는 해설보완매체가 없다.
- ③ 안내판 해설의 모든 부분을 성산일출봉 지질설명으로 할애하고 있다. 해설은 4문장으로 되어있어 길지는 않지만 내용 중에 ‘**용회구**’ ‘**하부**’ ‘**상층**’ ‘**수성 분출**’ ‘**화도**’ ‘**분석**’ 등 지질용어와 한자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일반 관람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참고 그림(그림 9-2)의 이해 난이도는 일반 관람객의 지질지식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 ④ 해설 마지막 문장 ‘**분석(일명‘송이’)이나 용암으로 채워지지 않고 현재와 같이 사발모양으로 남게 되었다**’에서 사발모양으로 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 ⑤ 외국어표기는 영어 외 중국어, 일본어까지 포함 되어 있어 안내판화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성산일출봉안내판<그림 9, 9-1, 9-2>는 경관, 정보 전달, 효율성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림 10, 10-1, 10-2> 성산일출봉 퇴적작용 설명안내판

<그림 10>안내판 경관	<그림 10-1>안내판 내용	<그림 10-2>보조그림
		
<p>찍은 날짜. 2020.4.20.</p>	<p>찍은 날짜. 2020.4.20.</p>	<p>찍은 날짜. 2020.4.20.</p>

<안내판내용>

**성산일출봉 응회구의 퇴적작용**

성산일출봉 응회구는 축축하게 젖은 화산재가 분화구 주위에 가파르게 쌓이고, 때때로 화산재 층이 사면 아래로 무너져 내리면서 만들어 졌다(①). 분출이 끝난 후에는 비와 바람 등의 침식에 의해 분화구 가장자리를 따라 여러 개의 뾰족한 봉우리와 골짜기가 만들어 졌다(②). 이곳에서는 성산일출봉의 화산분출, 퇴적과정, 그리고 그 후에 발생한 침식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림설명**

화산이 분출하여 쌓이는 과정을 ① 과 ② 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쓰인 용어를 보면 층리가 발달한 응회암. 렌즈상의 사태 및 암설류 퇴적층. 제퇴적된 퇴적층. 화산탄. 화쇄난류. 암설류. 사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설 첨부되어 있음.

출처: 성산일출봉안내판<그림 10, 10-1, 10-2> 내용을 제외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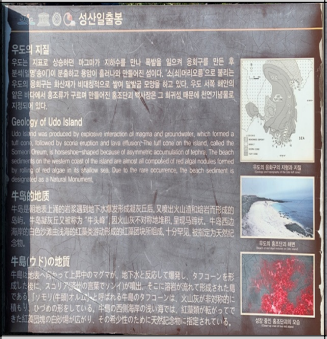
성산일출봉안내판<그림 10, 10-1, 10-2>는 성산일출봉의 퇴적에 관한 안내판으로 성산일출봉의 암벽과 완만한 경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안내판의 바탕색과 글씨색깔은 기타 안내판과 동일하고 안내판해설 오른쪽에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과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현무

암으로 된 프레임을 끼워 꺾임안내판으로 만들었다. 이 안내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 ① 해설안내판<그림 10, 10-1, 10-2>과 주위에 스피커, 경고, 지시, 번호 안내판들이 혼잡하게 섞여서 설치되어 있어 관람객들로 하여금 혼잡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이런 모습들이 경관을 해치고 있다.
- ② 다른 안내판과 마찬가지로 안내판해설을 보완할 수 있는 QR코드가 없어 관람객들이 관람시작 전·후에 홍보관을 방문하지 않은 이상 보완해설을 얻을 방법이 없다.
- ③ 설명 내용 중에 ‘응회구’ ‘화산재’ ‘사면’ ‘화산탄’ ‘화쇄난류’ ‘암설류’ ‘응회암’ ‘렌즈상의 상태’ ‘재퇴적층’ 같은 고등학교의 수준을 넘는 지질학 용어가 범람하고 있으며 참고 그림과 사진도 안내판 해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짚으면서 읽어가야 하는데 이는 전문가의 수준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다.
- ④ 다른 안내판과 마찬가지로 외국어표기 또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혼재되어 있어 해설내용의 양에 비하여 안내판화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안내판에 현무암프레임을 끼웠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하고 금속패널에 필름을 입혔기 때문에 내용개선에는 용이 할 수 있으나 햇볕에 쉽게 벗겨지고 전체적인 디자인 교체가 어렵다. 이는 다른 안내판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다.

이 안내판 또한 문화재청의 안내판개선 5원칙 중 경관과 정보전달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으며 이는 성산일출봉내에 있는 해설안내판에 전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그림 11, 11-1, 11-2> 성산일출봉 우도 해설안내관

<그림 11>안내관 경관	<그림 11-1>안내관 내용	<그림 11-2>보조 그림
		
<p>찍은 날짜. 2020.4.20.</p>	<p>찍은 날짜. 2020.4.20.</p>	<p>찍은 날짜. 2020.4.20.</p>

<안내판내용>

**우도의 지질**

우도는 지표로 상승하던 마그마가 지하수를 만나 폭발을 일으켜 응회구를 만든 후 분석(일명'송이')이 분출하고 용암이 흘러나와 만들어진 섬이다. '소(쇠)머리 오름'으로 불리는 우도의 응회구는 화산재가 비대칭적으로 쌓여 말발굽 모양을 하고 있다. 우도 서쪽 해안의 얕은 바다에서 홍조류가 구르며 만들어진 홍조단괴 백사장은 그 희귀성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설 첨부되어 있음.

출처: 성산일출봉안내관<그림 11, 11-1, 11-2> 내용을 제외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성산일출봉안내관<그림 11, 11-1, 11-2>은 우도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우도의 지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안내판의 디자인과 재질은 다른 안내판과 대동소이하다. 이 안내판<그림 11-1>은 디자인, 효율성,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안내판이 담은 정보에 있다. 이 안내판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① 성산일출봉내에 있는 안내판은 성산일출봉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 안내판<그림 11-1>은 우도를 설명하고 있다<sup>34)</sup>.

② 만약 ‘우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성산일출봉의 안내판에서는 ‘저 멀리 보이는 섬이 우도’라는 대략의 설명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안내판 <그림 11-1>은 ‘지표’ ‘분석’ ‘화산재의 비대칭’ ‘홍조류’ ‘단괴’같은 전문가수준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질 상식이 없는 관람객은 이해하기 힘든 우도의 지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sup>35)</sup>.

③ ②에 이어 만약 우도에 대한 지질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설명을 보완 할 수 있는 보조그림<그림 11-2>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그려져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 수준의 관람객만이 이해할 만한 지질단면도를 영어로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성장 중인 홍조단괴’라는 사진을 첨부하여 일반관람객이 안내판해설 전체를 이해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성산일출봉의 안내판은 2017년도에 교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판의 필름이 벗겨지며 노후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의 전달 방식에 있었다. 대부분의 안내판이 지질해설에 편중되어 있고 내용이 일반 관람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안내판이 관람객으로 부터 외면 받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성산일출봉 관람은 단지 경관구경에 그치고 있었다. 설령 지질에 관심이 있는 관람객인 경우에도 모든 안내판에 지질용어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그 뜻을 파악하고 주의 깊게 읽고 지나가지 않으면 다음 안내판부터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성산일출봉이 아닌 문화재를 해설하는 불필요한 안내판도 있었다.

## 2. ‘성읍마을’ 안내판의 현황 및 문제점

### 1) ‘성읍마을’ 안내판의 현황

성읍마을의 해설매체는 안내판, 소책자, 그리고 해설사로 이루어져 있다. 성읍마을의 주문(主問)인 남문 맞은편에 종합안내소가 2019년에 생겼고 그 곳에서 소

34) ‘해당문화재가 아닌 것은 설명하지 않는다. 출처: 문화재청(2008), 앞의 책, p.11.

35) ‘일반적인 관람객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해설 한다’, 문화재청(2008), 앞의 책, p.12.

책자를 얻을 수 있다. 해설사는 관람객이 요청하면 해설을 해주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안내판은 세계유산본부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 교체한 시기는 2017년도이다. 아직까지 노후화된 안내판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내판주관은 2012년까지 서귀포시청에 서 맡아서 관리하였고, 그 후 2016년까지 제주도 도청에서 관리하다가, 201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

해설안내판은 크게 종합안내판과 개별안내판으로 나누어져 있고, 종합안내판은 성읍마을에 대한 개괄설명을 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일본어 해설, 성읍마을 전체 안내도, 영어, 중국어 해설로 3개의 안내판이 1묶음으로 되어 있었다. 개별안내판은 국가 민속 문화재로 등록된 가옥의 구조 설명으로 채워져 있으며 한국어, 영어해설로 채워져 있다. 보통 종합안내판은 하나의 문화재 권역에 1개 설치하는 것이 보통인데 성읍마을에는 남문입구에 1개, 객사를 벗어난 도로 중간에 똑같은 종합안내판이 중복 설치되어 있다.

안내판의 크기는 다양하고 디자인은 현무암벽돌로 벽을 만들고 그 위에 금속 패널을 덧붙인 마치 제주도 돌담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다. 방향을 표시한 안내판에 성읍마을의 지도와 함께 현재의 위치를 넣은 것이 개선된 안내판의 특징이다. 안내판의 형태를 보면 크기가 작은 꺾임 안내판은 동문과 서문에 설치 됐는데 이는 크기가 작은 돌하르방을 설명하기 위한 안내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움 안내판이다. 안내판의 색깔은 현무암돌담과 비슷한 진한 회색이었고 글씨는 흰색바탕의 음각으로 새겼다. 전체적으로 돌담에 안내판을 세웠기 때문에 안내판이 경관을 가리거나 설명하려는 문화재보다 돋보이지는 않았다. 개별안내판은 대부분 문화재로 등록된 가옥에 집중되어 있다.

보완안내매체인 지도 겸 소책자의 내용 또한 가옥구조의 설명이 대부분이었으나 안내판에 없는 설명이 첨가 되어 있다. 하지만 소책자에 나온 해설은 이 전 성읍마을에 설치되었던 안내판의 내용을 차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QR코드는 종합안내판 지도에 하나가 있고 다른 안내판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연구를 위하여 성읍마을에 설치된 총18개의 해설안내판을 조사하였고 종합안내판을 포함하여 마을 내에 있는 상징적인 문화재를 해설하는 안내판 5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안내판이 비교적 최근(2018년)에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제안하는 5원칙에 위배 되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2) '성읍마을' 안내판의 문제점

<그림 12, 12-1> 성읍마을 종합안내판



<안내판해설>

국가 민속 문화재 제188호(지정일:1984.6.12)

제주 성읍 마을은 정의현의 읍치\* 인데, 읍성 안에 관청 건물을 비롯하여 객사, 정의 향교, 느티나무와 팽나무(천연기념물 제161호),돌하르방, 마을의 민가(국가 민속 문화재)등이 잘 남아 있어서 제주도의 민속과 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조선 초 제주에는 한라산 북쪽 한 곳에만 관아가 있어 남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관아를 왕래하는데 불편이 많았다. 이에 조선 태종 16년(1416)한라산 남쪽 약 36km(90여리)를 동서로 나누어 동쪽에는 정의현, 서쪽에는 대정현을 설치하고 조선 후기까지 유지했다. 그 중 정의현은 처음에 성산고성리에 읍치를 두었으나 큰 마을과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어서 세종5년(1423)에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읍성의 규모는 동서 160m, 둘레 약1,200m에 달하며 높이는 약 3m정도이고, 남, 동, 서 세 군데에 성문이 있으며, 방어 시설로는, 바깥쪽으로 돌출된 ㄱ자 형태의 읍성과 성문을 두었다.

\*읍치: 고을, 군아가 있던 곳

영어, 일어 해설 첨부되어 있음.

출처: 성읍마을종합안내판<그림 12> 내용을 제외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성읍마을안내판<그림 12, 12-1>은 마을의 주 성문인 남문 입구 앞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안내판으로서 성읍마을에 대한 개괄 설명을 하고 있다. 안내판의 재질

은 현무암벽들로 만든 돌담에 금속패널을 덧붙였다. 안내판의 설치주체는 세계유산본부이며 안내판 교체는 2018년으로서 비교적 최근에 교체되었다. 안내판은 총 3개로 이루어 졌으며 첫 번째 안내판은 한글설명과 일본어번역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안내판은 성읍마을 안내도와 마을 내에 있는 문화재 위치도이다. 세 번째 안내판은 영어와 중국어로 설명하는 안내판이다. 안내판 맞은편에 관리 사무소가 있으며 그 곳에서 지도 겸 소책자를 얻을 수 있어 해설 부분에 있어서 안내판과 연계 할 수 있다. 유일하게 종합안내판에는 QR코드가 있다. 성읍마을의 종합안내판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① 안내판의 재질은 돌담과 이에 덧붙인 금속패널로 되어 있다. 금속패널은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이라 설치 후 관리에 편리하고 통일감을 줄 수 있지만 마을이라는 경관에 어울리지 않고 특징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단 안내판설치에 돌담을 이용한 점은 제주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 ② 안내판의 위치선정이 경관을 해치고 있다. 차라리 안내판을 성벽 가까이 설치 했으면 경관부분에서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 ③ 하나의 문화재 권역에는 1개의 종합안내판이면 충분하다. 남문에 1개 객사 옆 도로변에 1개, 이렇게 중복으로 설치되어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④ 안내판의 해설을 살펴보면 성읍마을에는 민속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있고, 원래 수산리에 있던 읍치를 이전하였다는 내용과 마을의 규모와 시설을 설명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종합안내판에 문화재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개괄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관람객의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읍마을은 제주에 남아 있는 유일한 ‘읍성’이라든가 ‘고성리’에서 읍성을 옮기기 전에 조선의 풍수사상에 의하여 계획·설계 후 옮겼다는 스토리는 관람객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요소인데, 현재 안내판의 설명만으로는 성읍마을의 특징과 관람객의 흥미를 끌어올리기에 미흡한 점이 보인다.

<그림 13, 13-1> 성읍마을 '대장간 집' 안내판



<안내판내용>

**제주 성읍 마을 대장간 집**

국가 민속 문화재 제72호(지정일:1979.1.26)

제주 성읍 마을 대장간 집은 안거리(안채)와 ㄱ자로 놓인 모커리(안채 곁에 달려 있는 집채)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문(대문)도 없고 우영(집터에 달려 있거나 집 가까이 있는 밭)같은 공간도 전혀 없다.

19세기 말엽에 지어졌다고 전해지며 대장간으로 쓰였다고 한다. 안거리 자체가 대장간이었으므로, 안거리 평면의 칸살은 나중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안거리는 작은 방이 있는 3칸 집이고 모커리는 정지간(부엌칸)이 만들어졌는데, 이 정지간 또한 20세기 중반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안거리가 대장간으로 쓰이던 때에는 상방(대청마루)과 작은 구들 및 정지간의 구별이 없었고, 대장간 한가운데에는 땅에 기둥뿌리를 묻는 생깃(상기둥)을 세우고 경사진 대들보를 얹었던 원초적인 가옥형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영어해설 첨부되어 있음.

출처: 성읍마을대장간안내판<그림 13-1> 내용을 제외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성읍마을안내판<그림 13, 13-1>을 살펴보면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안내판과 같은 모양, 색깔, 형태를 통일 시켰음을 알 수 있다.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안내판을 담벼락 높이에 맞추고 담벼락 사이에 끼어 넣었다. 이런 자연스런 모습이 제주형 안내판 모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 할 수 있다. 안내판문안 구성을 일본어와 중국어를 빼고 한글과 영어로만 구성되

어 있어 화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 안내판의 문제점은 안내판이 설치된 위치가 가정집이라는 것인데 이는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해설 문안에도 문제가 보인다. 이에 해당 안내판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① 안내판제목은 ‘**제주 성읍 마을 대장간 집**’이다. 그런데 보완매체인 소책자에는 ‘**고상은 가옥**’이라 나와 있다. 같은 문화재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관람객이 혼동할 수 있다.
- ② 안내판문구에 옛 대장간 구조와 문화재가 지어진 연대가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처럼 보인다**’가 반복적으로 나와 추측에 의한 설명으로 들린다.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해설 한다’에 어긋나는 해설방법이다.
- ③ 문화재자체(국가 민속 문화재 제72호)가 가정집이고 안내판이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관람객의 접근이 용이 하지 않다.
- ④ 이 안내판도 다른 안내판과 마찬가지로 안내판제목에 ‘**제주 성읍 마을**’이라는 권역이름이 있다. 개별안내판에는 권역이름을 생략하라고 제안하고 있다<sup>36)</sup>.
- ⑤ 안내판의 안내 문구를 살펴보면 대장간이었던 곳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다. 대장간의 위치가 왜 이 곳이었는지, 무엇을 만들었는지, 만든 물건들은 어디에 썼는지, 철은 어디서 구해 왔는지, 대장장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부족하다.

---

36) 문화재청(2008), 앞의 책, p.88.

<그림 14, 14-1> 성읍마을 ‘객주집’안내판

<p style="text-align: center;">&lt;그림 12&gt;안내판 경관</p> 	<p style="text-align: center;">&lt;그림 12-1&gt;안내판 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찍은 날짜. 2020.4.20</p>	<p style="text-align: center;">찍은 날짜. 2020.4.20</p>

<안내판내용>

**제주 성읍 마을 객주집**

국가 민속 문화재 제68호(지정일:1979.1.26)

제주 성읍 마을 객주집은 예전 정의 고을의 객사 앞에 자리하고 있으며, 본래 객주집이었다고 전해진다.

넓은 대지에 안거리(안채), 뽕거리(바깥채), 모커리(안거리와 뽕거리 사이에 가로 놓인 집채), 창고, 이문간(대문간)등 다섯 채의 건물이 마당을 중심으로 ㄱ자형으로 알맞게 배치되어 있다.

안거리는 전형적인 제주도의 3칸 집이며, 전면에 풍채(차양)가 설치되어 있고, 뽕거리는 안채와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으며 이문간에 가까운 2칸은 헛간이다.

18세기 말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가옥은 정의 고을의 중심가에 있으면서 제주농가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객주집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생활사를 잘 보여준다.

영어 해설 첨부되어 있음.

출처: 성읍마을객주집안내판<그림 14-1> 내용을 제외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성읍마을안내판<그림 14, 14-1>의 디자인은 다른 안내판과 대동소이 하였다. 안내판의 제목은 ‘**제주 성읍 마을 객주집**’인데 소책자에는 ‘**조일훈가옥**’으로 나와 있다. 안내판 내용은 주로 안거리, ‘**뽕거리**’ ‘**모커리**’ ‘**이문간**’ 같은 제주어 가옥이름과 구조를 설명하고 있고, 한 때 객주집으로 이용되었다는 설명이 있다. 이 안내판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① 안내판의 규모가 크고 문화재 출입구에 있는 가로등 옆에 세워져 있어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 ② 안내판의 제목은 ‘**제주 성읍 마을 객주집**’인데 보조해설매체인 소책자에서는 ‘**조일훈 가옥**’으로 나와 있어 관람객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 ③ 해설매체의 위계가 바뀌었다. 안내판해설에는 가옥이름과 구조를 소책자에는 가옥의 연대와 기능 및 민속 문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제안하는 해설매체의 위계에 따르면 이는 반대가 되어야 한다.<sup>37)</sup>
- ④ 다른 안내판과 마찬가지로 안내판제목에 권역이름 ‘**제주 성읍 마을**’이 들어가 있다. 권역이름은 종합안내판에만 쓰고, 개별 안내판에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불필요하다.
- ⑤ 한글의 바른 표기 ‘**객줏집**’이 아니라 한자 ‘**객주집(客主집)**’을 음독하여 ‘**객주 집**’이라 표기되어 있다<sup>38)</sup>.

<그림 15, 15-1> ‘정의골 돌하르방(동문)’안내판

<그림 15>안내판 경관	<그림 15-1>안내판 내용
	<p><b>정의골 돌하르방(동문)</b> Dolhareubang in Jeongui-gol Village (East Gate)</p> <p>제주특별자치도 민속 문화재 제 2-22-25호(지정일: 1971. 8. 26)</p> <p>정의골 돌하르방(동문)은 정의현 성 동문 입구에 세워져 있으며, 높이는 121~160cm 정도로 각기 다르다. 돌하르방은 1970년대에 붙여진 이름으로, 본래는 우석목, 무석목, 박수머리 등으로 불렸다. 이 석상은 동문 앞 좌우에 각각 2기씩 세워져 있다.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고, 주술적, 종교적 의미를 드러내며, 도둑질의 경계를 명확히 알려 주는 기능을 한다. 육지의 장승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p> <p>[크기] 제-22호 : 높이 121.5cm, 너비 52cm, 폭 32cm(완승 위, 오른승 아래) 제-23호 : 높이 124.5cm, 너비 54.5cm, 폭 48cm(완승 위, 오른승 아래) 제-24호 : 높이 159.5cm, 너비 67cm, 폭 39cm(완승 위, 오른승 아래) 제-25호 : 높이 133cm, 너비 49cm, 폭 32.5cm(완승 위, 오른승 아래)</p> <p>Jeju-do Folk Cultural Heritage Nos. 2-22-25 (designated on August 26, 1971)</p> <p>The four stone grandpa statues (Dolhareubang) in Jeongui-gol Village (East Gate), which are 121~160 cm tall, stand at the entrance of the East Gate of Jeongui-hyeon Fortress - two to the left of the gate, and the other two to the right of the gate. Until the statues were named dolhareubang in the 1970s, they were called useongmok, museongmok, or baeksumeri. They served not only as boundary stones to demarcate the seat of the capital but also as guardians for the visitors' safety and health, with shamanic and religious meaning just like totem poles in the mainland.</p>
<p>찍은 날짜. 2020.4.20.</p>	<p>찍은 날짜. 2020.4.20.</p>

<안내판내용>

**정의골 돌하르방(동문)**

**제주특별자치도 민속 문화재 제2-22-25호(지정일:1971.8.26)**

**정의골 돌하르방(동문)은 정의현 성 동문 입구에 세워져 있으며, 높이는 121~160cm 정도로 각기 다르다. 돌하르방은 1970년대에 붙여진 이름으로, 본래는 우석목, 무석목, 박수머리 등으로 불렸다.**

37) 문화재청(2008), 앞의 책, p.18.

38) 객줏집-‘지난날, 객주 영업을 하던 집’이라 정의하고 있다. 출처 『새동아국어사전』

이 석상은 동문 앞 좌우에 각각 2기씩 세워져 있다.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고, 주술적, 종교적 의미를 드러내며, 도읍지의 경계를 정확히 알려 주는 기능을 한다. 육지의 장승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규격] 제2-22호:높이 121.5cm, 폭 32cm(왼손위, 오른손 아래)

제2-23호:높이 124.5cm, 너비 54.5cm, 폭 48cm(왼손 위, 오른손 아래)

제2-24호:높이 159.5cm, 너비 57cm, 폭39cm(왼손 위, 오른손 아래)

제2-25호:높이 133cm, 너비 49cm, 폭 32.5cm(왼손 위, 오른손 아래)

영어 해설 첨부되어 있음.

---

출처: 성읍마을동문돌하르방안내판<그림 15, 15-1> 내용을 제외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성읍마을안내판<사진 15, 15-1>은 돌하르방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 안내판이다. 안내판의 디자인은 돌하르방의 크기에 맞추어져 있어 다른 안내판보다 크기가 작고 작은 돌담에 꽂혀 있는 형태이다. 안내판이 크지 않아 위압감을 주지 않고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 이 안내판은 성읍마을 동문에 있는 돌하르방 4기를 설명하고 있으며 내용은 돌하르방의 주술적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며 육지의 장승과도 비교하고 있다. 밑에는 돌하르방의 규격을 수치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내판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① 보조해설매체인 소책자에는 돌하르방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 관람객은 안내판 해설에만 의존해야 한다.
- ② 안내판의 제목은 ‘정의골 돌하르방(동문)’이라 되어 있다. 반면에 다른 안내판의 제목은 모두 ‘제주 성읍 마을~’로 시작한다. 제목 간에 이질감이 있어 관람객이 혼동할 수 있다.
- ③ 안내판의 내용을 보면 성읍마을 동문의 4기 돌하르방에 대한 설명과 기능만 설명하고 있어 정작 돌하르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관람객들의 의문점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 ④ 돌하르방의 규격 수치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는 일반관람객들의 관심사와 거리가 멀다.

<그림 16, 16-1> 성읍마을향교 안내판



<안내판내용>

**정의향교**

제주특별자치도 유형 문화재 제5호(지정일:1971.8.25)

이 향교는 1408년(태조8)흥로현(서흥동)에 처음 세워졌다가, 1420년(세종2)성산읍 고성리로 옮겨졌다. 1423년(세조5)에 현 성읍리인 진사리 서성 밖에 건립되었다가, 1849년(현종15) 현 위치에 옮겨졌으며, 1967년에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향교건물이 남쪽을 향하는 것과는 달리 이 향교는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대성전과 학문 공간인 명륜당이 좌우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이 정의향교에는 현재 전패(殿牌)가 보관되어 있는데, 원래 전패는 지방 각 고을의 객사 안에 모신 '전(殿)이란 글자가 쓰여진 나무패이며, 이는 '대전(大殿)' 곧 임금을 상징하는 위패였다.

영어 해설 첨부되어 있음.

출처: 성읍마을향교안내판<그림 16, 16-1> 내용을 제외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성읍마을안내판<그림 16, 16-1>은 향교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다. 안내판이 향교로 들어가는 길목에 설치되어 있어서 경관을 해치지 않고 돌담형태의 벽면에 패널을 붙였기 때문에 길게 늘어선 돌담과도 잘 어울린다. 안내판을 성읍마을 대장간안내판<그림 13, 13-1>처럼 돌담 안으로 붙여 넣었으면 디자인적으로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안내판은 정보 전달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다.



- ① 안내판해설 서두에 향교의 이전(移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향교의 구조, 전패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향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 ② 향교에 대한 해설은 안내판과 소책자에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안내판에는 없지만 소책자에는 향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전에 설치되었던 안내판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서 안내판 개선을 할 때 안내판문구에 향교의 정의를 빼버린 것이다.
- ③ 안내판에 향교의 정의와 기능, 역할 같은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야 되고, 소책자에 좀 더 세분화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안내판에 세분화된 기능을 설명하고 있고 소책자에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정보전달의 위계체계가 뒤바뀌었다.
- ④ 단어 ‘**향교**’의 영어번역을 보면 좀 넓은 의미의 향교에 대한 정의, 즉 성리학의 성현들을 모시는 사당 및 학교라는 정의를 넣어야 하는데 단지 ‘*Confucian School*’(공자학교)로만 소개하고 있다.

2018년에 교체된 안내판 내용은 그전과 대동소이하였지만 몇 가지 달라진 점도 있었다. 문화재 명칭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국가 민속 문화재 제 72호 고상은 가옥**’이 ‘**제주 성읍 마을 대장간 집**’으로 바뀌었고 ‘**국가 민속 문화재 제 68호 조일훈 가옥**’은 ‘**제주 성읍 마을 객주집**’으로 바뀌는 등 이전의 가옥소유주의 이름을 차용하여 명명 했던 문화재 이름이 가옥의 용도에 따라 바뀌었다. 방향안내판에 조그만 위치표시가 있는 약도가 있어서 관람객들이 현재 어디쯤에 있는지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번역이 생략되었다. 이는 문화재청에서 제안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안내판재질은 금속패널과 돌담을 사용하였다. 금속패널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질이라 성읍마을의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돌담은 성읍마을의 정체성에 맞는 재질이다. 왜냐하면 마을 가옥의 주재료가 돌과 나무이기 때문이다. 다른 곳의 문화재 안내판과 비교하여 보면 디자인의 일관성이 보이고 내용도 간략해졌고 요점으로만 채운 안내판도 있다<sup>3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안내판이 내용면에서 성읍마을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39) 부록으로 남긴 근민헌 안내판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이 제안에 알맞게 객관적사실과 요점만 채워 안내판에 기재되어 있다.

### 3. '알뜨르비행장' 안내판의 현황 및 문제점

#### 1) '알뜨르비행장' 안내판의 현황

'알뜨르비행장'에서는 안내판이 유일한 해설매체이다. 홍보관과 해설사도 없다. 셋알오름도 알뜨르비행장과 같은 권역이라 할 수 있는데 셋알오름에 설치된 '일본군진지동굴'과 '고각포'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QR코드가 있는 반면 알뜨르비행장내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QR코드가 없다. 이는 안내판설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안내판설치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서귀포시청, 대한민국 공군 등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고, 안내판설치에 관해서는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알뜨르비행장에는 총 28개의 안내판이 있는데 해설안내판이 19개, 경고, 방향, 금지 안내판이 9개였다. 안내판재질을 살펴보면 종합안내판은 금속패널에 필름을 입힌 형태였고 개별안내판은 금속패널에 사진을 첨부한 흰색 음각의 글씨를 넣었다. 종합안내판은 규모가 커서 경관을 가리고 훼손하고 있었고 개별안내판은 사이즈가 작은 꺾임 안내판과 세움 안내판이 있는데 꺾임 안내판은 사이즈가 작아서 경관을 훼손하지 않았지만 세움 안내판은 꺾임 안내판에 비하여 규모가 커서 경관을 훼손하고 있었다. 개별안내판 중에는 타일로 된 안내판과 어린이 교육용 만화안내판도 있었다. 유적지가 농지이다 보니 안내판에 오물이 묻어 있고 몇몇 안내판은 노후화로 필름이 벗겨지고 있는 상태였다. 많은 안내판이 가독성이 떨어진 상태이다. 안내판의 내용면을 보자면 몇 개의 안내판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내용, 또는 다른 안내판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 문구였다. 그리고 해당문화재와 동 떨어진 해설을 하는 '**알뜨르의 제로센**'같은 안내판도 있었다. 종합안내판과 몇 개의 개별안내판은 한글해설과 영어번역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중국어와 일본어를 병행 표기한 안내판도 있었는데, 통일성이 없었다. 이는 설치시기 또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안내판 중에는 '**해방이후 알뜨르비행장 전경**'처럼 실제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첨부된 사진도 있었다. 정보전달 면에서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정의를 종합안내판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전쟁 및 학살의 비극을 제주의 근. 현대사에만 둘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 정의가 불명확하다<sup>40</sup>). 특히 제주도는 고려시

대부터 몽고, 중앙정부의 꺾박에 시달려왔고 그 결과 많은 제주민이 희생당했으며 그런 곳의 유적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크투어리즘의 대상지를 제주의 근. 현대사의 비극적인 장소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해설을 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잃고 주관적 해석을 하는 안내판도 있었고, 사실보다 과장설명을 하는 안내판도 보였다. 하나의 한글문구를 두 종류로 번역한 영어문안도 보였다. 문화재해설과 상관없는 개인안내판도 있었다. 알뜨르비행장의 총 15개의 안내판을 조사하였고 내용 중에 안내판 작성의 큰 요건이 객관성을 잃은 안내판을 중심으로 5개를 골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2) ‘알뜨르비행장’ 안내판의 문제점

<그림 17, 17-1> 알뜨르비행장 종합안내판



<안내판내용>

알뜨르비행장 주차장에서 세워진 대형안내판이다. 총 3파트로 나누어 졌다. 첫 번째는 알뜨르비행장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유적지 위치를 표시한 지도. 두 번째는 주요 유적지 설명. 세 번째는 다크투어리즘과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개념 설명이다. 한글과 영어로 설명되어 있다.

**1.평화와 인권을 되새겨 보는 역사교훈 여행(다크투어리즘)**

**알뜨르 비행장 비행기 격납고**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지하벙커**

40) 다크투어리즘의 정의: 역사교육현장, 전쟁 및 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는 여행. 출처: 알뜨르비행장 종합안내판

제주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제주 셋알오름 일제 고사포진지  
제주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 2. 제주 다크투어리즘 성지

알뜨르 비행장 일대 일제 군사시설

알뜨르 비행장 비행기 격납고

‘격납고’는 ‘비행기나 비행선을 넣어 두거나 정비하는 비행장용 군사 시설이다. 알뜨르비행장에는 일본군의 자살 공격에 동원되는 ‘제로센’을 숨기기 위하여 격납고가 조성하였다. 알뜨르비행장의 격납고는 단일 비행장 시설로는 일본 본토 다른 비행장과 비교해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19기의 격납고가 온전히 남아있다.

영어해설 첨부되어 있음.

## 3.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지하벙커

알뜨르비행장 지하벙커는 활주로와 격납고가 집단적으로 조성된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이 지하 벙커는 남북 방향으로 길이 약 30m, 너비 약 20m 장방형 구조를 하고 있다. 남쪽 입구에서 중심부 공간까지의 길이가 약 7m이며 오른쪽으로 2층 통로와 연결되어 있다. 통로 중간 지점에 지상부와 연결되는 통로 3곳이 설치되어 있다. 통로 내부 벽면에는 철제 사다리가 녹이슨 상태로 몇 개 박혀 있어, 이곳을 통해 지상부를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하 벙커는 비행대 지휘소 또는 통신시설 등으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해설 첨부되어 있음.

## 4. 제주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셋알오름 동굴 진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송악산 북쪽 세 개의 알오름 중 두 번째 오름에 설치된 군사 시설이다. 이 진지는 길이가 1,220m에 이르는 미로형의 대형 동굴로, 입구가 여섯 군데 나 있다. 「제주도 항공기지 위치도」에는 이 시설이 어뢰, 통신, 연료, 화약 등을 저장하고, 고사포를 지휘하는 용도로 표기되어 있다.

오름 정상부에는 고사포 진지 2곳과 벙커 1곳이 남아 있는 등 ‘셋알오름’ 전체가 하나의 요새였음을 알 수 있다. 진지가 구축된 ‘셋알오름’은 송악산 북쪽 3개의 알오름 가운데 동쪽의 동알오름, 서쪽의 셋알오름 사이에 있는 오름이다. ‘셋알오름’의 ‘셋’은 ‘사이’또는 ‘둘째’의미를 갖고 있는 제주어이다.

영어 해설 첨부되어 있음.

## 5. 제주 셋알오름 일제 고사포진지

알뜨르비행장 ‘고사포진지’는 일제강점기에 미군 항공기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군사 시설

이다. '고사포'는 항공기를 사격하는 데 쓰는, 양각(仰角)이 큰 포를 말하는데, 달리 '고각포'라고도 한다.

1937년 중일전쟁 초기에 구축된 '고각포 진지'는 1943년에 콘크리트 구조로 포대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이때 사정거리 20km에 이르는 미군 B29 폭격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형 고각포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곳에 설치했던 포대는 폭파 제거되었으나 콘크리트 포상(砲床)흔적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영어해설 첨부되어 있음.

#### 6. 제주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송악산 동굴 진지는 일제강점기 말 패전에 직면한 일본군이 해상으로 들어오는 연합군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송악산 해안에 구축된 군사 시설이다.

이 진지는 연합군 함대를 향해 소형 선박을 이용한 자살 폭파 공격을 위하여 구축된 동굴 13곳과 벙커2곳, 그리고 관측 용도로 구축된 동굴진지 1곳 등으로 이루어졌다.

동굴 진지가 구축된 송악산은 태평양전쟁 때 연합군 상륙 작전의 가장 유력한 예상 지역으로서,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한 결7호 작전의 최전방이었다. 인근에는 알뜨르비행장이 건설되어 있어 연합군에게 점령당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되는 요충지였다.

영어해설 첨부되어 있음.

#### 다크투어리즘

'다크투어리즘'이란 전쟁이나 테러, 인종말살, 재난처럼 비극적인 역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 듣고 느끼는 여행이다.

제주 지역의 다크투어리즘 장소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군사 기지화를 위한 군사시설과 4.3사건의 잔혹한 현장을 들 수 있다. 특히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는 제주의 다크투어리즘의 성지로, 역사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크투어리즘의 세계적인 장소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400만 명이 학살당했던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꼽을 수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생체실험실.고문실.가스실.처형대.화장터와 함께 희생자들의 머리카락과 낡은 신발, 옷가지 등을 담은 거대한 유리관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물과 나치의 잔학상을 기록한 영화 관람등을 통하여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알뜨르비행장

'알뜨르비행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대정읍 상모리 아래쪽의 너븐 벌판에 제주도민 등을 동원하여 건설한 군용 비행장이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이 비행장을 전초 기지로 삼아 약 700km떨어진 중국의 난징을 폭격하기 위해 오무라 항공대의 많은 전투기를 '알뜨르'에서 출격시켰다. 그러나 1938년 11월 일본군이 상하이로 점령하자 오무라 해군항공대는 중국 본토로 옮겨

졌고, '알뜨르 비행장'은 연습 비행장으로 남았다. '알뜨르비행장'은 '마을 아래에 있는 너른 벌판'의 뜻을 갖고 있는 상모리 '알뜨르'에 조성되어서 붙은 이름이다.

\*'알뜨르'란 제주어 표기법상 「'알';아래, '드르';벌판」으로 아래에 있는 너른 벌판의 의미로 '알뜨르'임

---

출처: 알뜨르비행장 종합안내판<그림 17, 17-1> 내용을 제외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알뜨르비행장' 안내판<그림 17, 17-1>은 종합안내판이다. 여기 안내판은 QR코드나 소책자 같은 보조해설매체가 없어 관람객들은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정보를 전적으로 안내판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안내판의 재질은 금속패널에 필름을 입힌 형태이다. 안내판은 총 3개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안내판은 알뜨르비행장의 위성사진을 첨부한 위치도이다. 두 번째 안내판은 알뜨르비행장과 주위의 중요 문화재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안내판은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설명과 그 예로서 아우슈비츠수용소를 얘기 하고 있다. 그리고 하단에는 알뜨르비행장의 개괄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알뜨르비행장 종합안내판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 ① 관람객이 하나의 안내판을 읽는 시간은 약 20초~30초 정도이다. 하지만 이 안내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대략 10분~15분 정도 소요될 정도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 ② 이 안내판에 쓰인 안내 문안이 다음에 볼 개별 안내판에도 그대로 쓰여 있다. 이는 안내판의 정보공유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는 뜻이다.
- ③ 안내판의 제목이 '**평화와 인권을 되새겨 보는 역사교훈 여행(다크투어리즘)**'이다. 안내판 제목이 문화재 혹은 문화재 권역의 소개가 아니라 '다크투어리즘'이라는 관광용어를 제목으로 내세웠다. 문화재를 보러 온 관람객들은 자연히 '다크투어리즘'이라는 관광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문화재를 보려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 ④ 더욱이 두 번째 안내판에서 '**다크투어리즘의 성지**'라는 문구를 보면 '**성지**'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 ⑤ 안내판<사진 17-1> 3번째 줄부터 5번째 줄까지에 기술된 정의 '**제주 지역의 다크투어리즘 장소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군사 기지화를 위한 군사시설과 4.3사건의 잔혹한 현장을 들 수 있다**'를 보면 제주도의 다크투어리즘의

장소를 일제강정기와 4.3사건의 현장으로 국한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앞에 나온 ‘**다크투어리즘**’ 정의에는 ‘전쟁이나 테러, 말살, 재난처럼 비극적인 역사 현장’ 제주도의 오랜 역사에서 이런 곳이 근. 현대사 외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 ⑥ ‘**아우슈비츠**’의 예까지 끌어온 것은 ‘안내판은 문화재 이외의 것은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문화재청의 정보전달원칙을 명백히 거슬리고 있다.

<그림 18, 18-1, 18-2> ‘알뜨르비행장’ 안내판

<그림 18> 안내판 경관	<그림 18-1>안내판 내용	<그림 18-2>안내판 사진
		
<p>찍은 날짜, 2020.4.20</p>	<p>찍은 날짜, 2020.4.20</p>	<p>찍은 날짜, 2020.4.20</p>

<안내판내용>

**알뜨르비행장**

‘알뜨르비행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대정읍 상모리 아래쪽의 너른 벌판에 제주도민 등을 동원하여 건설한 군용 비행장이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이 비행장을 전초 기지로 삼아 약 700km떨어진 중국의 난징을 폭격하기 위해 오무라 항공대의 많은 전투기를 ‘알뜨르’에서 출격시켰다. 그러나 1938년 11월 일본군이 상하이를 점령하자 오무라 해군항공대는 중국 본토로 옮겨졌고, ‘알뜨르 비행장’은 연습 비행장으로 남았다. ‘알뜨르비행장’은 ‘마을 아래에 있는 너른 벌판’의 뜻을 갖고 있는 상모리 ‘알뜨르’에 조성되어서 붙은 이름이다.

\*‘알뜨르’란 제주어 표기법상 「알;아래, ‘드르;벌판」으로 아래에 있는 너른 벌판의 의미로 ‘알드르’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설 첨부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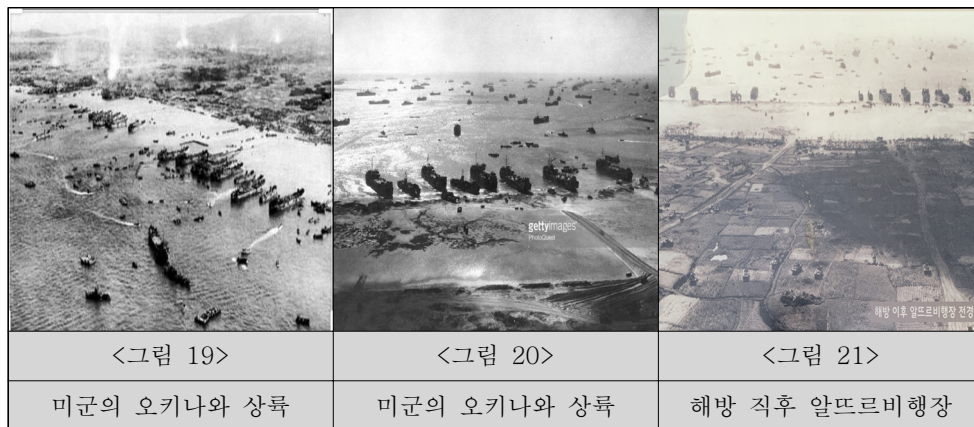
출처: 알뜨르비행장 종합안내판<그림 18-1> 내용을 제외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알뜨르비행장’ 안내판<그림 18>은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개괄 설명과 사진 두 장으로 보완설명을 하고 있다. 안내판의 규모가 크지 않고 꺾임안내판이라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 보조해설매체인 QR코드나 소책자는 없다. 안내판의 내용은 알뜨르비행장 종합안내판<그림 17-1>에 나와 있는 해설과 동일하다. 장소가 농지인지라 먼지와 새 분비물로 안내판 사진이 훼손되고 있다. 안내판 해설을 종합안내판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온 것도 문제이지만 이 안내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내판 오른쪽에 첨부되어 있는 두 장의 사진이다. 안내판<18-2>를 보면 위에



있는 사진은 ‘해방 이후 알뜨르비행장 전경’ 모습이고 밑에 있는 사진은 ‘알뜨르비행장 현재 모습’이다. 안내판<그림 18-2>에 나와 있는 ‘해방 이후 알뜨르비행장의 전경’은 사실 알뜨르 비행장이 아니라 태평양전쟁 말 미군의 오키나와 상륙작전의 모습의 사진을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밑에 있는 그림<좌19, 중20, 우21>을 보면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의 오키나와 상륙과 해방 후 알뜨르비행장의 모습을 비교했는데 세 사진 모두 태평양전쟁 전쟁 당시 미군의 오키나와상륙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과 다른 사진을 안내판에 게시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제안하는 사실 전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그림 좌19, 중20, 우21>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의 ‘오키나와 상륙’과 안내판의 해방 후 알뜨르비행장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같은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출처.<http://marylandreporter.com/files>. (검색일: 2020, 05, 21)

<그림 22, 22-1> 알뜨르비행장 남제주격납고 안내판

<p>&lt;사진 22&gt;안내판 경관</p>	<p>&lt;사진 22-1&gt;안내판 내용</p>
	
<p>찍은 날짜. 2020.4.20</p>	<p>찍은 날짜. 2020.4.20</p>

<안내판내용>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등록문화재39호. 1937년 건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489번지 외.

이 시설물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들이 제주도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건설한 전투기 격납고이다. 당시 20기가 건설되었지만, 지금은 19기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1기는 잔재만 남아 있다. 이 유적은 제주도를 일본군의 출격 기지로 건설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지상 건축물로, 진지를 구축하려 했던 인공 동굴은 많이 있으나 다량의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이것이 유일하다.

영어 해설 첨부되어 있음.

출처: 알뜨르비행장 남제주격납고안내판<그림 22-1> 내용을 제외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알뜨르비행장’ 안내판<그림 22-1>은 알뜨르비행장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 안내판이다. 이 안내판의 규모는 크지 않고 꺾임 안내판 형태라 경관을 훼손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 경관을 보면 하나의 문화재에 3개의 안내판이 줄지어 설치되어 있어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화재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이 안내판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① 내용을 보완할 QR코드나 소책자가 없어 관람객들은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안내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② 문화재의 등록명이 ‘**남제주 비행기격납고**’이다. 이를 안내판 이름으로 표기했다. 이전 안내판들이 계속 ‘**알뜨르비행장**’이라는 제목을 쓰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
- ③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sup>41)</sup>으로 제안하고 있음에도 이 안내판에는 주소를 기재하고 있다.
- ④ 안내판의 내용을 보면 첫 문장과 마지막문장을 제외하면 이전의 안내판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 ⑤ 안내판은 객관적이며 사실만 해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2차 대전은 1939년9월1일~1945년9월2일까지가 공식적인 기간<sup>42)</sup>이다. 이 격납고의 건립 시기는 1937년으로 나와 있는데, 안내판 해설에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들이 제주도민을 강제 동원하여 건설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람객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 ⑥ 안내판 내용에 ‘**강제동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동원**’ 이라고 써야 객관성 있는 해설이라 할 수 있다.

41) 문화재청, 「문화재 안내판 개선 단계별 프로세스」, 앞의 책, p.88.

42)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https://ko.m.wikipedia.org>), (검색일: 2020. 5.30.)

<그림 23, 23-1> 알뜨르비행장 남제주 격납고 만화안내판



<안내판내용>

만화로 알뜨르비행장이 건설된 경위와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주민들이 동원된 내용이 있으며 비행기훈련병을 양성한 곳이라는 설명도 있다. 전쟁의 잔혹성을 덧붙이기 위하여 ‘가미가제’ ‘독고다이’라는 전략을 설명하면서 말미에 이 격납고가 자살공격의 특명을 받은 카미카제 특공대의 출격지라는 설명이 있다.

안내판<그림 23-1>을 연구자가 요약함.

‘알뜨르비행장’ 안내판<그림 23>은 교육용 애니메이션 안내판으로서 몇 년 전부터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지에서 어린이 교육용으로 설치되고 있는 안내판이다. 애니메이션 안내판은 일반 안내판보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안내판이다. 스토리텔링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주변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 안내판의 내용은 알뜨르비행장이 건설된 경위와 주민이 강제 동원된 이야기가 중심이다. 중. 일 전쟁과 전투기 훈련병을 양성한 곳이라는 설명이 있다. 전쟁의 참상을 묘사한 그림과 함께 ‘가미가제’ ‘독고다이’라는 전투전략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다. 설명 말미에 이 격납고가 자살공격의 특명을 받은 ‘가미가제’ 특공대 출격지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 안내판 그림 중에 한 컷은 제주도가 마치 태평양전쟁의 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 안내판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① 애니메이션 안내판은 스토리전개가 있어야 하고 압축된 설명을 늘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안내판의 규모가 일반 안내판보다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 안내판 또한 규모가 커서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 ② 어린이는 미성숙한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설명이 필수이다. 알뜨르비행장이 태평양전쟁의 한 복판에 있었는지, 카미카제특공대가 실제로 알뜨르비행장에서 출격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 ③ 특히 만화 안내판은 저자의 주관적 관점을 쉽게 이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단체의 감수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도 안내판은 각 분야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시민단체의 감수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sup>43)</sup>

<그림 24, 24-1> 알뜨르비행장의 제로센 안내판



### <안내판내용>

#### **알뜨르의 제로센**

알뜨르비행장은 일제가 중국대륙의 남경 폭격을 위해 1926년부터 10년 동안 건설한데서 비롯된다. 비행장의 격납고들은 패전의 기운이 역력해지던 1944년, 미군의 일본본토 진공루트7개를 예상하고 만들어진 일제의 본토방어계획 중 '결7호' 작전의 가미가제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곳 알뜨르에는 일제의 전투기를 감추기 위해 시설된 당시의 격납고, 총 38개소 중 20개소가 현재까지도 콘크리트 구조물로 온전하게 남아 있다.

이 작품은 일제의 태평양전쟁기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전투기인 제로센을 실물크기로 형상화한

43) 문화재청(2008), 앞의 책, p.98.

작품으로 2010년 <경술국치 100년 기획 박경훈 개인전 '알뜨르에서 아시아를 보다'>의 출품작 중 하나다. 전시 당시의 작품제목은 <애국기매국기>였다.

작가: 박경훈, 강문석

재료: 철

크기: 길이x높이x폭/날개넓이:9m x 3m x 11m/ 21m<sup>2</sup>

영어 해설 첨부되어 있음.

---

출처: 알뜨르의 제로센 안내판<그림 24-1> 내용을 제외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알뜨르비행장’ 안내판<그림 24>는 2017년 비엔날레 작품을 전시하면서 세운 안내판인데 당시 임시안내판이 지금은 상시안내판이 돼버렸다. 이 안내판 또한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안내판 기본원칙에 많이 위배는 모습을 보인다.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 ① 안내판이 내용에 비하여 규모가 커서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 ② 문화재청의 제안에 따르면 문화재가 아닌 것은 설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 안내판은 문화재가 아닌 개인작품을 문화재에 얹혀서 설명하고 있다.
- ③ 안내판 제목이 ‘알뜨르의 제로센’인데 안내판 내용은 앞전에서 이미 설명된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고 있는 불필요함을 반복하고 있다.
- ④ 개인작품을 문화재유적지에서 설명하는 것은 문화재해설이 아니라 개인 홍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안내판은 안내를 빌미로 한 개인 홍보판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알뜨르비행장 안내판의 문제점은 주로 정보전달의 원칙에서 어긋났다. 안내 문안이 중복되어 있고, 객관적이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다. 같은 내용이 중복된 안내판들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동시에 경관을 해치고 있었다. 2017년 알뜨르비행장에서 비엔날레 출품 작품을 전시하면서 작품 설명하는 임시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하였다. 그 후 철거해야 할 안내판이 지금도 남아 있다. 개인 작품을 전시하면서 임시 안내판이 아닌 상시 안내판을 문화재 옆에 세우는 일은 문화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 IV. 개선방안 및 모델제시

### 1. 제주도 문화재 안내판 개선방안

#### 1) ‘성산일출봉’ 안내판의 문제점 개선방안

안내판은 관람객에게 문화재 관람방향을 제시하고 흥미를 높이는 기능을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산일출봉안내판을 조사한 결과 관람객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재청에서는 ‘**안내판은 문화재 설명이 아닌 것은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안내문작성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성산일출봉안내판 중에서 문화재가 아닌 것을 설명하는 안내판들이 다수 발견된다. 안내판이 문화재를 설명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설명하면 그것은 안내판이 아니라 홍보판이 되어 버린다. 관람객은 그것이 홍보인지 모르고 열심히 읽다가 결국 홍보를 읽어 버리는 셈이 된다. 대표적인 예가 성산일출봉안내판<그림 7, 7-1>인데 이는 성산일출봉이라는 관공서 연말행사를 홍보하는 안내판이 아닌 홍보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내판은 관람객들이 성산일출봉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키는 악영향을 끼친다. 문화재가 아닌 것을 설명하는 안내판은 폐기하거나 안내문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성산일출봉의 안내판은 설치위치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성산일출봉의 안내판은 경관훼손을 우려해서인지 펜스 뒤에 설치한 안내판이 종합안내판을 포함하여 4개가 보였다. 안내판은 경관훼손을 해서도 안 되지만 관람객의 동선에서 벗어나도 안 된다. 안내판위치 설정은 이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안내판이 펜스 뒤에 설치된 한 것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안내판에 접근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특히 종합안내판은 관람객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이기 때문에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람객의 동선에 맞아야 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외국어표기인 경우 문화재청에서는 종합안내판을 제외한 개별안내판에는 영어만 표기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안내판화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성산일출봉의 안내판은 모두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채워져 있어 안내판의 크기에 비하여 정보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정보를 압축하여 전달하려 하고 있고 이는 안내문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는 외국어를 영어로 한정시키고 화면의 효율성을 높여 좀 더 관람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야 한다.

전자기기의 발달로 안내판을 보완할 수 있는 매체들이 발달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의 QR코드인데 이는 안내판이 지면의 한계로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하는데 반하여 QR코드는 지면의 한계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안내내용을 제공하여 문화재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

안내판의 재질은 문화유적지의 품위를 나타낸다. 현재 성산일출봉의 안내판 재질은 금속패널에 필름을 입힌 형태로 이러한 형태는 안내문구의 교체는 용이하나 쉽게 색깔이 바뀔 수 있고 필름가장자리에 부식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안내판이 지저분해지기 쉽다. 안내판의 재질은 2018년에 문화재청과 시가 합작하여 설치한 천지연폭포의 안내판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성산일출봉정상에 있는 안내판<그림 7, 7-1, 7-2>은 설치위치의 중요성으로 보아 종합안내판 다음으로 관람객이 가장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안내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일출봉정상에서는 경고, 방향, 지시에 관한 안내판은 즐비한데 정작 해설을 볼 수 있는 안내판은 찾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안내판이 펜스 뒤 수풀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즉 관람객의 안내판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정상에서 관람객의 요청 하에 해설을 해주기는 하나 관람객들이 정상에 올라간 이유가 해설사의 해설을 듣기 위해서는 아니다.<sup>44)</sup> 수동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려는 경향이 있는 관람객이 해설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안내판이 자연스럽게 관람객의 동선에 맞춰져야 한다.

44) Assael, H.(1998).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에 따르면 정보 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관여도가 높은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거나, 구매 특이적 성격을 보일 때는 상황적으로 관여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관여도가 낮은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 한다.



성산일출봉의 많은 안내판이 현무암으로 된 프레임에 끼인 안내판형태를 하고 있다. 현무암은 화산암이기 때문에 성산일출봉의 정체성에 맞을 수 있고 고급재질이기는 하나 안내판은 언제든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재질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안내판은 관람객이 문화재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안내 문안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이다.

성산일출봉안내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안내판의 문구이다. 성산일출봉이 세계자연유산이며 지질공원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안내판이 지질해설로 일관되어 있다. 총 10개의 해설 안내판 중에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지질해설로만 이루어져 있다. 관람객은 문화재를 관람할 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관람한다. 성산일출봉도 지질 외에 연관된 전설이나 역사 이곳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과 문화 등 해설할 소재가 풍부하다. 지질해설도 고등학교 과학 수준의 상식이 없는 관람객은 이해하지 못할 안내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회구**’ ‘**용회환**’ ‘**용회암**’ ‘**렌즈상의 상태**’ ‘**암설류**’ ‘**화쇄난류**’ 등 과 같은 용어는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다가오는 단어들이다. 문화재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해설을 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해설을 보완하는 그림과 사진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더 안내판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성산일출봉의 안내판의 내용을 개선하고 설명도 자연과 문화를 적절히 섞은 해설을 채워 넣은 안내판으로 교체해야 한다.

## 2) ‘성읍마을’ 안내판의 문제점 개선방안

성읍마을의 안내판 디자인은 대부분 돌담에 금속패널을 덧붙인 형태이다. 전국적으로 안내판의 재질로 사용되는 금속패널을 여기에도 사용되고 있다. 안내판의 재질과 형태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분위기 속에서 여기 성읍마을의 독창성이 묻혀버리고 있다. 그나마 돌담을 사용하여 안내판의 배경으로 사용하면서 성읍마을의 독창성을 돋보이게 하고 있으나 금속패널의 사용으로 그 효과가 감소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속패널 대신 마을 분위기와 어울릴 수 있는 방수 처리된 목재패널을 제안한다. 목재패널은 금속패널보다 저렴하여 쉽게 교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분위기에 맞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성읍마을의 안내판은 비교적 최근(2018)에 교체되었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다음 안내판 개선에서는 목재패널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목재패널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모두 다 갖춘 재질이며 마을 분위기에도 알맞다.

성읍마을은 박물관을 제외하고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유·무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적지이며 주민이 사는 마을이다. ‘정의현’으로부터 시작한 이 마을의 역사는 500년이 넘었다. 그만큼 이야깃거리가 많은 곳이다. 성읍마을 개별 안내판을 조사해 보니 대부분 가옥 구조를 설명하는 데 급급하였다. 일반적인 관람객들은 가옥의 구조보다 오히려 마을의 문화 혹은 주민들의 삶, 역사 같은 다양한 분야에 더 관심을 갖는다. 이는 안내판 해설이 가옥구조 중심에서 문화, 역사 같은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한 해설로 바뀌줘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 해설안내판이 관람객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안내판을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안내판 해설의 보완매체인 소책자와도 정보공유와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이는 안내판 설치의 주관인 세계유산본부와 소책자발행 주관인 서귀포시청간의 소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안내문의 내용이 관람객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채우고 정보전달매체 간의 소통과 체계를 잡아야 할 것이다.

해설정보매체 간의 체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내판의 기능을 상실하기 쉽다. 안내판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관람객의 수준에 맞게 흥미롭게 풀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정보보안매체는 안내판에서 다 하지 못한 설명을 이어나가야 한다. 성읍마을 해설안내판은 문화재의 핵심을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길도는 가옥의 구조나 기능을 해설하고 있고 오히려 소책자에 본질적인 것을 해설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사실 소책자의 내용은 교체되기 전 안내판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즉 이전의 안내판 내용을 소책자로 옮기고 안내판 문구를 개선한 것이다. 그런데 개선된 안내판내용이 길도는 문화재 해설을 하고 소책자가 좀 더 문화재의 본질에 가까운 설명을 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안내판에는 ‘대장간’(그림 13, 13-1) ‘성읍 마을 객주집’<그림 14, 14-1> ‘근민현’이라 제목을 붙였고 소책자에는 같은 장소를 ‘조일훈가옥’ ‘고상은가옥’ ‘일관현’이라 제목을 붙였다. 같은 문화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보매체간의 기관들끼리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안내판과 소책자의 정보공유와 안내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다. 덧붙여서 성읍민속안내판<그림 14, 14-1>에서 한자 ‘**객주(客主) 집**’을 그대로 음독하여 ‘**객주집**’이라 표기 하였는데 이를 ‘**객줏집**’으로 바꾸는 것이 옳은 표기법이다.

성읍마을은 박물관이 아니라 주민이 살고 있는 실제 마을이다. 이곳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우선 마을 주민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개인 주택이 대장간으로 지정된 ‘**대장간 집**’같은 경우 안내판이 바로 집 문 앞에 설치되어 있어 관람객이 빈번하게 오고가기 때문에 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되기 쉽다. 안내판의 디자인과 경관훼손이 있을 지라도 관람객의 동선에 맞추어서 안내판위치를 변경하기를 제안한다.

‘**성읍 마을**’은 이곳 문화유적지의 권역이름이다. 문화재청의 제안에 따르면 종합안내판에 권역이름이 언급되었다면 그 아래 단계인 개별안내판에는 생략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제목의 혼잡성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성읍마을의 개별안내판의 제목을 보면 계속해서 ‘**제주 성읍 마을**’이라는 권역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를 생략하기를 제안한다.

많은 사람들의 성읍마을을 방문할 때 가장 흥미를 가지는 문화재가 돌하르방이다. 돌하르방은 제주도내에 45기가 있는데 그 중에 12기가 성읍마을에 있다. 성읍마을의 돌하르방은 제주시 혹은 대정의 돌하르방과 확연한 모습의 차이가 있다. 이는 성읍마을만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설명하는 정의골 돌하르방(동문)안내판<그림 15, 15-1>에는 그러한 설명이 없다. 단지 동문에 있는 돌하르방의 규격을 수치로 표현하는 데 급급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는 일반 관람객에게는 불필요한 정보이다. 안내판은 특정한 관람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람객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안내판을 읽는 독자를 일반인으로 타깃을 설정하여 그들의 흥미와 해당 문화재에 대한 지식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안내판문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안내판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향교를 설명하는 안내판<그림 16, 16-1> 있어서 향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그것은 안내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대장간을 설명하는 안내판<그림 13, 13-1>에도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대장간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이 사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과 비슷하다. 성읍마을의

정체성은 수산리에 있던 읍치를 현재의 위치로 계획된 설계에 의하여 옮기는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그 이유는 소책자 서두에 나와 있다. “**원래 정의현은 태종 16년(1416) 안부사 오식의 건의에 따라 성산읍 고성리에 정의현을 축성하였으나..... 중략..... 두 곳의 우물이 있다**” 고로 성읍마을의 안내판은 이러한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옥구조나 기능에 대한 설명에서 벗어나 성읍마을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해설이 만들어져야 한다.

### 3) ‘알뜨르비행장’ 안내판의 문제점 개선방안

알뜨르비행장의 안내판은 문화재청에서 제안하는 5가지 원칙 중 시스템과 정보전달의 원칙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종합안내판인 경우, 안내판의 규모가 불필요하게 커서 주위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었다. 안내판의 규모를 줄이고 보완매체인 QR코드를 설치하던가 소책자를 발행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 안내판들은 농지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유적지보다 빠르고 쉽게 훼손되고 있었다. 좀 더 세심한 관리와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사실 알뜨르비행장의 안내판의 문제점은 디자인이나 경관의 문제보다 내용에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다. 종합안내판의 제목이 ‘**평화와 인권을 되새겨 보는 역사교훈여행(다크투어리즘)**’이라 되어 있다. 문화유적지에 ‘다크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내걸고 운영하는 곳은 제주도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학계에서 상정하는 다크투어리즘의 범위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상세분화 되어 있으며 사업적인 사례도 포함하는 분위기이다<sup>45)</sup>. 이 곳 알뜨르비행장에서 다크투어리즘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불투명하다. 제주도는 고려시대부터 근. 현대까지 중앙정부를 비롯한 외부의 핍박에 시달려왔고 그 결과 많은 제주민들의 희생이 따랐다. 제주도 도처에 그런 유적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다크투어리즘의 성지로 국한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알뜨르비행장이 다크투어리즘의 성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자 하면 이 곳이 다크투어리즘의 성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의 목적이 평화와 인권을 되새겨 보는 역사교육을 얻기 위함일지라도 ‘다크투어리즘’으로 관람객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종합안내판의 두

45) 뉴스핌, (www.newspim.com), 2019.08.23. (검색일: 2020, 05, 30).

번째 안내판의 내용 중 ‘알뜨르비행장에는 일본군의 자살 공격에 동원되는 ‘제로센’을 숨기기 위하여 격납고가 조성되었다’ 부분은 일반화의 오류이다<sup>46)</sup>. 왜냐하면 남제주 격납고 안내판<그림 22-1>에 따르면 격납고의 건립시기는 1937년으로 되어 있고 일본군의 자살공격은 1945년에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격납고가 일본군의 ‘제로센’을 숨기기 위하여 조성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 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알뜨르비행장의 격납고가 자살공격에만 동원된 격납고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확인과 함께 문안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 안내판을 보면 정부나 기관이 지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제주의 다크투어리즘의 성지’라고 나와 있다. 만약 다크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고집한다면 ‘**다크투어리즘으로 관심이 높은 곳**’이라고 바꿔주는 것이 옳다. 그리고 아우슈비츠수용소에 대한 설명은 해당 문화재가 아니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화재청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만약 이 해설이 알뜨르비행장이라는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설명이라면 안내판에 아니라 QR코드 같은 다른 안내매체로 넘겨 설명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전쟁의 변두리에 속하는 알뜨르비행장을 2차 대전의 학살의 중심지인 아우슈비츠수용소와 함께 끌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보통 관람객이 안내판을 읽는데 투여되는 시간은 20~30초 정도이다. 그런데 알뜨르비행장의 종합안내판을 모두 읽으려면 10~15분이 걸릴 만큼 정보량이 많다. 효율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안내판의 문안을 대폭 줄이고 사진이나 그림을 첨부 하던가 기타 안내매체인 QR코드로 넘길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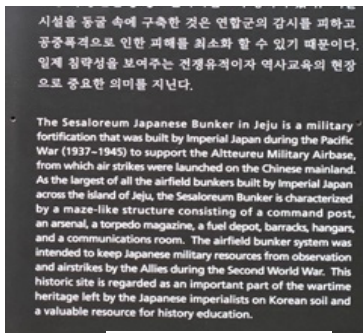
알뜨르비행장에는 애니메이션안내판이 2개가 있다. 보통 애니메이션안내판은 어린이 교육용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람객의 흥미를 높이고 일반적인 안내판보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가의 의도가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한 컷 한 컷 마다 객관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알뜨르비행장안내판(그림 23, 23-1)의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살펴보면 강제노동을 당하는 장면이라든가 비행기 전투씬은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문화유적지에 개

46) 몇 개의 사례나 경험으로 전체 또는 전체의 속성을 단정 짓고 판단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 출처: 위키 피디아사전, ([www.wikipedia.com](http://www.wikipedia.com)), (검색일: 2020, 0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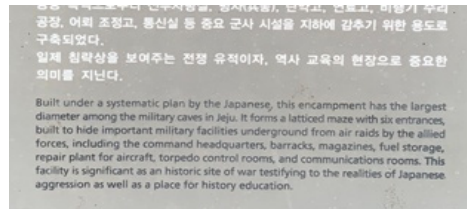
인작품을 전시하면서 임시안내판이 아닌 상시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영문해설에 있어서 흥미로운 점도 발견되었다. 안내판 <제주 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의 종합안내판과 개별안내판에 ‘**일제 침략성을 보여주는 전쟁 유적이자,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같은 문구인데도 불구하고 영문해설이 다르다.

제주 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 종합안내판(좌) 개별안내판(우)



<그림 25>



<그림 26>

<표 12> 셋알오름의 영문안내판 비교

‘일제 침략성을 보여주는 전쟁 유적이자,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This historic site is regarded as an important part of <b>the wartime heritage left by the Japanese imperialists</b> on Korean soil and a valuable resource for history education’	‘This facility is significant as an historic site of war testifying to the realities of <b>Japanese aggression</b> as well as a place for history education’
<그림 25>의 영문해설	<그림 26>의 영문해설

‘일제의 침략성’을 ‘**Japanese aggression**’ 직역한 안내판<그림 26> 보다, ‘**wartime heritage left by the Japanese imperialists**’라고 의역을 한 안내판 <그림 25>이 주관적 감정을 배제한 느낌이 든다. 이는 문화재청의 정보전달의 원칙 제안 ‘안내판문안은 객관적이어야 한다’에 부합한 안내 문안이다.

## 2. 제주도형 문화재안내판 모델 제시

안내판이라는 문화재를 보는 창문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안내판 개선원칙 5가지를 기존의 안내판에 적용하여 개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렇게 개선된 안내판을 제주의 정체성에 맞게 변형 시켜서 제주도형 문화재안내판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문화재안내판은 크게 자연·문화·역사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이 카테고리 속에서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선 해당 문화재에 대한 경관에 대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경관’이라 함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는 시각적 행위를 칭하는 개념으로서 ‘보이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체의 지역에서 지리적, 생리적, 문화적인 인간과의 시각관계이다. 즉 보이는 대상만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인간과의 상호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관의 정의를 고려하면 제주도형 안내판에 적용할 수 있는 ‘경관색채’를 창출해 낼 수 있다. ‘경관색채’라 함은 도시 혹은 자연이 갖는 색채이다. 즉 경관에 어울리는 색채인데 이는 그 지역을 인식하는 문화수용력, 이해력, 소재, 기술과 밀접한 관계에서 탄생된다. 즉 그 장소에 적합하고 아름다운 ‘경관색채’는 지역성, 자연풍경, 거리풍경, 건축양식과 관계가 있다.<sup>47)</sup> 이러한 경관색채를 발견하여 안내판에 적용하여야 그 지역의 특징에 맞는 안내판 디자인이 탄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산일출봉 같은 바다가 접해 있는 자연경관 중심의 지질공원은 바다와 화산이라는 지리적 특색을 적용하여 ‘경관색채’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관람객의 시선을 잡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읍마을 같은 역사·문화유적지의 경관을 반영할 수 있는 ‘경관색채’는 앞에서 본 성산일출봉과 같이 바다를 접해있는 경관과 다르기 때문에 안내판의 색채와 디자인이 성산일출봉과 같아서는 안 된다. 성읍마을 같은 경우 마을을 대표할 ‘경관색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성읍마을을 대표하는 문화재의 재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성읍마을을 대표하는 문화재의

47) 송광철·이몽룡(2007),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따른 도시경관 색채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 디자인 포럼 16권 0호』, 한국디자인 트렌드학회, pp.234-235.

재질은 돌과 나무이다. 이렇게 마을 문화재의 재질을 살펴보는 것도 ‘경관색채’를 창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동시에 안내판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질 또한 돌과 나무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돌담과 방수 처리한 목재패널을 사용하는 것은 성읍마을과 같은 역사·문화유적지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안내판 재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알뜨르비행장같은 근·현대사의 비극을 담은 역사유적지를 반영하는 ‘경관색채’는 성읍마을 같은 조선시대의 역사·문화를 담은 문화재유적지와 같아서는 안 된다. 아래의 그림은 인도 펠자브주의 암차르에 있는 ‘**잘리안왈라 박**’에 세워져 있는 해설안내판이다.<sup>48)</sup> 이 안내판의 특징을 보면 ‘경관색채’를 유적지에 많은 사암색깔과 함께 비극적인 현장의 분위기를 맞추어 붉은색의 사암을 프레임으로 삼고 그 위에 금속패널을 부착한 형태이다. 사암으로 된 프레임 옆에는 인도국교의 상징을 새겨 놓아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리고 사암에 부착된 금속패널은 손쉽게 교체 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그림 27, 그림 27-1〉 ‘잘리안왈라 박’ 안내판



‘알뜨르비행장’의 안내판 같은 경우 위의 안내판〈그림 27〉과 비슷한 내용과 경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경관색채와 디자인 부분에서 참고해 볼만 하다.

문화유적지 권역 내에서는 관람객이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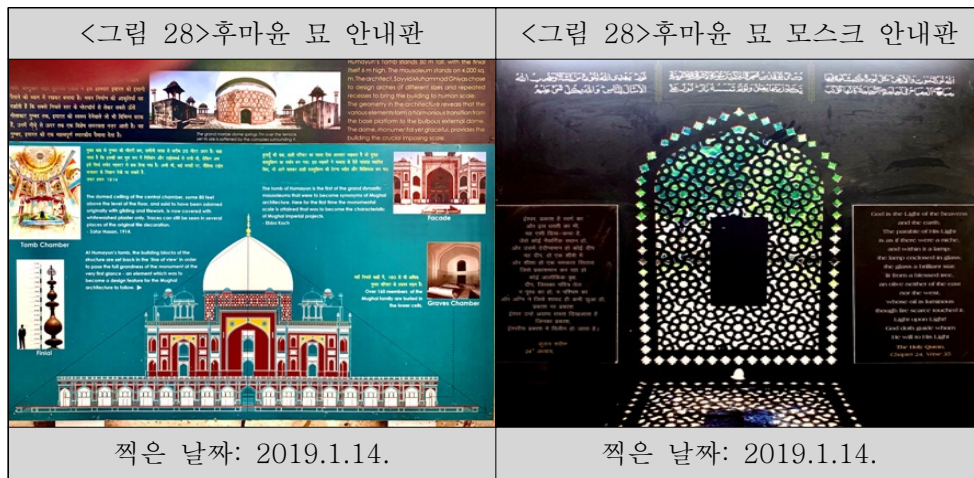
48) ‘잘리안왈라 박(Jallianwala Bagh)’은 인도 펠자브주의 암차르에 위치한 곳으로 1919년 4월 13일 무장한 영국군이 무장하지 않은 무고한 인도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곳이다.



판의 디자인을 통일시키는 일이 필요하지만, 제주도 전체를 한 종류의 안내판으로 디자인해 버리면 해당 지역과 문화재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장소와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안내판의 디자인을 다르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자인은 경관을 해치는 범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관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8>

<그림 29>



위에 예시된 안내판<그림 28>,<그림 29>은 인도 뉴델리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인 ‘후마운 묘’<sup>49)</sup>의 안내판이다. 인도 이슬람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유산인 만큼 안내판 또한 화려하게 디자인 되었다. 문화재청의 안내판개선원칙에서는 화려한 안내판은 해당문화재보다 튀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안하라고 제시한다. 하지만 문화재자체가 화려함의 극치를 보이는 경우라면 안내판도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어느 정도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화려함속에 ‘경관색채’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려함과 조잡함은 구별해야 한다.

49) ‘후마운 묘’는 페르시아양식을 토대로 한 무굴 건축의 초기 대표작으로 인도이슬람의 건축양식의 기본이 되는 건축물이다.



<그림 30> 사르나트유적지 안내판

오른쪽 안내판<그림 30>은 인도 바라나시의 ‘사르나트유적지’<sup>50)</sup> 안내판이다. 이 유적지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된 유산이다. 유적지의 경관에 맞게 화려함이 전혀 보이지 않고 경관색깔에 맞추어 사암재질로 안내판을 제작하였다. 이렇듯 문화재의 장소

적 특징과 정체성에 맞게 안내판의 경관색깔, 재질, 디자인을 다르게 설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처럼 제주형 안내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도 기존의 안내판처럼 색깔과 재질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해당 문화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경관색깔과 재질을 발견하여 적용 시켜야 한다.

안내판이 제주도의 해당 문화재를 해설하고 있더라도 그 해설의 끝에는 제주도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김항원,1998)은 ‘정체성’이란 어느 민족, 나라, 문화권에서 그 민족, 그 나라, 그 문화권에 만 있는 고유한 자질로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같은 자질이 나타날 수 있더라도 그 민족, 그 나라, 그 문화권에서 유별나게 나타나는 강한 자질이라 설명하고 있다.<sup>51)</sup> 제주도라는 문화권에서 유별나게 나타나는 강한 자질을 제주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이를 자연·문화·역사의 카테고리 나누어 안내판 해설 문안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 예시된 안내판<그림 31>은 법환동 ‘막숙’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석으로서 ‘막숙’이라는 지명의 유래와 최영장군이 목호의 난을 진압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표지석의 해설 문안을 들여다 보면 저자가 제주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과 없이 들어있다. 제주의 정체성관점에서 바라보면 여기에서 저항했던 ‘목호’가 왜 이렇게 제주도민들과 함께 처절하게 고려에 저항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우선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표지석의 해설 문안은 오히려 그런 맥락은 무시하고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제주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50) ‘사르나트유적지’는 고타마 싯다르타가 성도 후 첫 전법을 펼친 곳으로 알려진 곳으로 불교의 4대 성지 중 하나이다.

51) 김항원(1998),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 출판부.

한 해설 문안으로는 외부의 관람객들이 제주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해설안내판의 문안은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제주인의 시각으로 제주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림 31> 범환동 포구 막숙의 표지석

<p><b>&lt;그림 31&gt;막숙의 표지석</b></p> <p style="text-align: center;"><b>막 숙</b></p> <p>고려 공민왕 23년(1374) 최영 장군이 이끌고 온 대규모 정예군이 군막사를 치고 주둔하였던 사실에 유래하여 지명이 붙여졌다. 최영 장군은 제주도사회를 장악했던 몽골족 목호세력과 최후의 결전을 벌였다. 목호군 수뇌부가 계속 밀리다가 앞의 범섬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최영 장군도 주변에 있는 배염(배연)줄이라는 곳을 거쳐 군사를 이끌어 직접 범섬을 압박해 들어가 끝내 목호군 수뇌부를 궤멸시켰다. 여기는 고려가 100여 년 간 몽골족에게 빼앗겼던 제주도지역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범섬 전투의 첫 무대라는 역사적 사연이 깃들여진 곳이기때 표석을 세운다. (글쓴이: 고려사전공 문학박사 김일우)</p> <p>서기 2002년 7월 3일 세운 이: 서귀포문화원·범환동마을회</p> <p>찍은 날짜:2020.5.1.</p>	<p style="text-align: center;"><b>막 숙</b></p> <p>고려 공민왕 23년(1374) 최영 장군이 이끌고 온 대규모 정예군이 군막사를 치고 주둔하였던 사실에 유래하여 지명이 붙여졌다. 최영 장군은 제주도사회를 장악했던 몽골족 목호세력과 최후의 결전을 벌였다. 목호군 수뇌부가 계속 밀리다가 앞의 범섬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최영 장군도 주변에 있는 배염(배연)줄이라는 곳을 거쳐 군사를 이끌어 직접 범섬을 압박해 들어가 끝내 목호군 수뇌부를 궤멸시켰다. 여기는 고려가 100여 년 간 몽골족에게 빼앗겼던 제주도지역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범섬 전투의 첫 무대라는 역사적 사연이 깃들여진 곳이기때 표석을 세운다. (글쓴 이: 고려사전공 문학박사 김일우)</p> <p style="text-align: right;">서기 2002년 7월 3일 세운 이: 서귀포문화원 범환동마을회</p>
--	--

출처: 범환동 포구 막숙 표지석의 내용

그 지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그 지역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외지인들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신기해하고 제주다움을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제주어**’라고 한다. ‘제주어’는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서 쓰이는 언어이면서 육지의 한국어와 확연히 다른 느낌이 있다. 언어학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본토말과 다르다고 할 정도로 독립된 개별언어라고 까지 한다. 유네스코에서는 2010년 12월 제주어를 소멸위기 5단계 중 4단계 즉 ‘**아주 심각한 위기**’ 언어라고 규정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제주도민들은 아직까지 꽤 많이 사용하고 있다.<sup>5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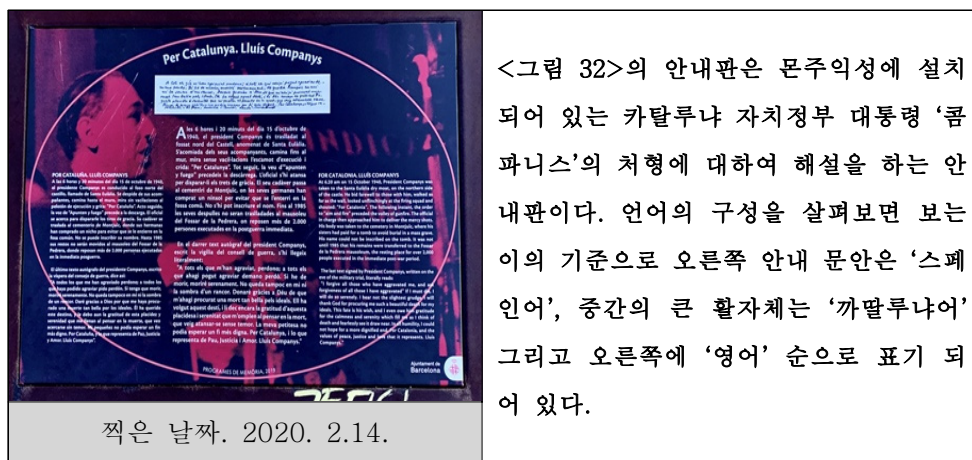
이렇게 언어의 정체성을 안내판에 잘 적용하는 예가 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모든 안내판 표시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카탈루냐어를 제일 먼저 표기하고, 그 다음 스페인어, 영어 순으로 표기하고 있다. 스페인어가 스페인 전역의 공용어이기 때문에 카탈루냐 지방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스

52) 윤용택(2015), 「제주도민의 정체성과 생활문화 의식」, 『제주도연구 제43집』, p.185.

페인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카탈루냐어로 표기하는 것은 그 지방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지의 표시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인도 편자브 지방에서도 안내판에 편자브어를 우선으로 표기하고 힌디어를 표기한다.

제주어는 우리나라의 각 지방의 방언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제주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화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위의 예처럼 제주도의 안내판에도 제주어를 표기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그림 32>문주익컴패니스안내판



안내판<그림 27-1>도 안내판<그림 32>과 비슷한 형태로 ‘편자브어’를 제일 위에 놓고 영어, 그리고 힌디어를 표기하였다. 이렇듯 안내판의 언어구성을 그 지방의 정체성을 우선으로 놓고 배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자연과 생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안내판은 단순히 문화재의 정보를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그 지방 주민들의 ‘정체성’과 ‘의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안내판에 어떻게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담고 있는지 다음 그림을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주도의 꽃자왈과 미서부 Moab 지역의 유타국립공원에 설치된 ‘뱀조심’은 경고문이다. 두 안내판을 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같다.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관람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 그림 34> 제주도 저지 꽃자왈과 유타 주 Moab 유타국립공원의 안내판

<p>&lt;그림 33&gt;저지 꽃자왈의 뱀조심 안내판</p>	<p>&lt;그림 34&gt;유타주 Moab 유타국립공원 뱀조심 안내판<sup>53)</sup></p>
	
<p>찍은 날짜: 2019.3.28.</p>	<p>찍은 날짜: 2016.4.21.</p>

<표 13> 안내판<그림 34>의 한글 번역

이곳에는 방울뱀이 출현 할 수 있습니다. 방울뱀들은 소중한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울뱀을 코너에 몰거나 공격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공격 할 수 있습니다. 방울뱀들과 거리를 두시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연구자가 <그림 34>을 참고로 번역

위의 두 안내판문구를 비교해 보면 제주 꽃자왈의 뱀조심 안내판<그림 33>은 뱀을 단순히 무섭고 기피해야 하는 동물로 여기는 인식을 나타내는 반면에 유타 주의 방울뱀 경고 안내판<그림 34 >은 방울뱀의 특징을 해설함과 동시에 자연의 일부라는 메시지까지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며 자연과 생태의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싶다면 이런 단순한 경고안내판의 안내문에도 생태의 중요성을 담을 필요가 있다.

안내판의 보완해설매체와 효율성을 언급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기술이 QR코드이다. QR코드는 안내판도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진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인터넷과 모바일만 있으면 문화재에 관한 정보를 확인 할

53) 안내판<그림 34 >사진 기증자: Benson Lee.

수 있다. 이는 안내판에 최소한의 문안을 넣으면서 효과적으로 디자인을 보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안내판의 숫자를 줄일 수 있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조잡한 10개의 안내판보다 세련되고 제대로 된 1개의 안내판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QR코드를 적극 활용하여 해설정보를 각 보완해설매체로 분산시키는 것을 강구하면 효율적인 제주도형 안내판 모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제주도형 안내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재별 카테고리를 자연·문화·역사로 나누어 해당문화재에 맞는 ‘경관색채’를 찾아내야 한다. 둘째, 안내판의 디자인 또한 해당문화재의 특징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디자인 속에는 화려함의 유·무를 별개로 조잡함이 없어야 한다. 셋째, 해설 문안은 제주도의 문화재 혹은 자연에 대한 정체성과 관점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넷째, 안내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책자나 오디오가이드 같은 보완해설매체에 계획성 있게 정보 분배를 하고 특히 QR코드 같은 현대적인 장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안내판도 끊임없이 진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5월30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성산일출봉, 성읍마을 그리고 알뜨르비행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다. 당시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분석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제안한 문화재 안내판가이드라인의 5원칙인 디자인의 원칙, 시스템의 원칙, 문화재 경관중심의 원칙, 정보전달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그리고 연구자가 제시한 ‘제주의 특수성’을 더하여 이렇게 여섯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분석틀에 적용하였다.

제주도내의 수많은 안내판 중에서 성읍마을, 성산일출봉, 알뜨르비행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을 선택하여 이 논문연구주제에 맞게 연구하였다. 이 세 곳을 선택한 이유는 이곳들이 제주도의 문화, 자연,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문화재가 많고 유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곳에 문제점이 많은 안내판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성산일출봉’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적인 자연유산이며 지질공원이다. 한 해 외부에서 온 관광객 중에서 관람객이 200만 명이 넘는 곳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안내판에 많은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장 조사 결과 설명이 필요한 장소에는 안내판이 없었고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장소에 안내판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몇몇 안내판은 펜스 뒤에 세워져 수풀에 가려져 있어 방문객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성산일출봉의 안내판은 자연유산과 지질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몰라도 지질에 관한 지식을 설명한 안내판이 대부분이었다. 안내판의 해설 문안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이상의 지질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질 용어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되도록이면 일상용어로 바꾸어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해설매체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성읍마을로 알려진 정의읍성은 국가지정중요민속자료(188호)로 보호되는 제주

의 전통마을이며 제주의 정체성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이다. 이 마을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천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읍성, 일제강점기의 읍성, 현재의 읍성으로 각기 다르게 봐야 한다. 전통마을이라고 하면 그 곳에서 살다간, 또 여전히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성읍마을은 기념품과 호객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변질되었다. 이런 점을 상기해보면 정의읍성의 안내판은 원래의 문화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찾아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자가 다년간 성읍마을을 여행객들에게 설명하면서 느낀 점은 일반관람객들은 제주 전통가옥에 대한 지식보다 오히려 문화와 전통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여기 성읍마을의 안내판은 대부분 가옥설명으로 시작하여 가옥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적극 염두에 두면서 안내판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연구 조사한 세 곳 중에서 최근에 안내판교체작업이 이루어진 성읍마을은 방문객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내용과 디자인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특히 각 안내판 밑에 작은 약도를 넣어 방문객들이 현재 자신들이 어디쯤에 있는지 파악하기 쉽게 디자인 한 점은 높이 살만 하였다.

‘알뜨르비행장’의 안내판은 ‘다크투어리즘’이라는 특성상 문화나 자연에 대한 설명보다 제주의 근·현대사 중에서도 일제의 침략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중복되는 안내판이 많은 듯하였고 내용 중에 객관성을 잃어 주관적 감정을 보이는 부분도 많아 보였다.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만화로 된 안내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시점으로 안내판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근·현대사를 해설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안내판내용의 생명은 객관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내판내용이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될 수 있다.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크투어리즘이라는 타이틀을 내걸 경우 제주도내의 많은 유적지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안내판제작을 주관하는 관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안내판작성자를 선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연 안내판제작자가 그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인지, 문화재에 대하여 어떤 관심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지, 제주도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안내판문구가 나오면 전문가들끼리 크로스체크를 해야 한다. 안내판작성에 있어서 심사 및 자문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성읍마을, 성산일출봉, 알뜨르비행장의 문화재들은 서로 결이 다르다. 그런데 안내판은 일률적으로 같은 재질,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안내판은 문화재에 녹아들어서 문화재와 함께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람객들은 안내판에 이질감을 느끼면서 해당문화재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판의 디자인이 단편적인 이유는 제도와 행적적인 절차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에서 다양성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제주도 전체의 안내판의 디자인은 획일적이고 내용은 무미건조할 수 밖에 없다. 자연·문화유산을 제대로 가꾸고 보존하는 일은 문화재 자체를 보존하는 소극적인 행동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데 있다. 그 첫 단추가 안내판개선이라 할 수 있다.

안내판을 개선한다는 것은 해당 문화재의 정체성을 객관적 시각으로 관람객에게 알리는 작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재의 가치와 스토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현지조사,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최적 안을 도출해야 한다. 각각의 안내판은 해당 문화재를 설명하고 있을지라도 설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주도를 그리고 있어야 한다. 즉, 문화재안내판의 내용은 제주도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데 모자이크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안내판문구를 분석하고 제안하고 최적안을 도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제주형 안내판 모델을 도출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된 디자인과 안내판문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쪼록 제주의 자연, 문화, 유산, 그리고 교육에 관한 안내판을 제작할 때 이 연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參考文獻)

### 1. 국내문헌

- 강경환(2008), 『궁궐의 안내판이 바뀐사연』, 안그래픽스.
- 강순석(2017), 「제주의 자연」, 『제주학개론』,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 강순원(2010), 『제주에서 바라보는 제2차 세계대전』, 제주포럼C.
- 고종석(2014), 『고종석의 문장-한국어글쓰기강좌』, 알마.
- 고희범(2013), 『이것이 제주다: 제주 깊이보기』, 단비.
- 김용주(2014),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개선 방안 연구-남원시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주연·홍성주(2016), 「세계문화유산 화성행성 내 관광안내판 보완수단으로써 이동식 안내판 적용」, 『여가관광연구』, 제25호, 관광종합연구소.
- 남승민·권현교·배준호(2016), 「관광정보안내판과 유니버설디자인 관광안내체계가 해상.해안 국립공원 탐방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Journal of Hotel & Resort*. Vol. 15. No4.
- 노송자(2007), 「관광지 영어안내판 번역 오류 분석-남원시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문화재청(2018), 『인자인과 안내문에 관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문화재청.
- 문화재청(2018), 『사례로 보는 문화재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 문화재청.
- 문화재청(2018), 『문화재 안내문 작성 키포인트』, 문화재청.
- 박경훈(2014), 『제주담론2』, 도서출판 각.
- 박상혜(2018), 「상상적 접근 질문을 통한 문화재교육방안」, 인하대학교 교육 연구소.
- 박종인(2018), 『땅의 역사』, 상상출판.
- 백승우(2003), 「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 전략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변진숙(2015), 「서울시 지정문화재 안내판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국제예술 디자인 대학원 석사 논문.
- 송광철·이몽룡(2007),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따른 도시경관 색채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 디자인 포럼 16권 0호』, 한국 디자인 트렌드 학회.
- 아름지기(2008), 『궁궐의 안내판이 바뀐 사연』, 안그라픽스.
- 유홍준(2012),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 :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창비.
- 윤용택(2015), 「제주도민의 정체성과 생활문화의식」, 『제주도연구』, 43집.
- 이영권(2012),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 이영권(2004),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 이재경(2018), 「교육적 활용 측면에서 본 국가지질공원 안내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종근(2016), 「전남지역 관광지 영문안내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언어학』, 대한 언어학회.
- 임헌혁·문형식·김주형(2013), 「영월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관광안내판 디자인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 전경수(1999), 『환경해설관의 해설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내장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 전영준(2017), 「제주의 역사」, 『제주학개론』, 제주연구원 제주학 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 좌혜경(2012), 「제주 성읍민속마을의 전통의 발견과 무형유산의 보호」, 『제주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주학회, Vol 2012, No 1.
- 주강현(2011), 『제주기행』, 웅진지식하우스.
- 최태광(2003). 『관광가이드 실무론-TG/TC의 이론과 실제』, 백산출판사.
- 최희섭(2008), 「관광지안내판의 교육적활용: ‘전주사고’를 중심으로」, 『경관법과 경관계획』, 한국통번역교육학회, (사)한국경관협의회.
- 허권(2012), 「세계유산의 국제이해교육으로서의 가치」, 『국제이해교육』, 한국국제 이해 교육학회, 제7호.

## 2. 외국문헌

Assael, H.(1998),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Hems, A(2006), *Heritage Interpretation*. London : Taylor and Francis

McIntosh, P. A.(1982). *Signs and Labels*. In G. W. Sharpe (Ed.), *Interpreting the environment*(pp.262-281). New York : Wiley.

## 3. 국내 신문 및 인터넷 언론 기사

<뉴스핌> ([www.newspim.com](http://www.newspim.com)), 2019년 8월 23일자, “다시 주목받는 다크투어리즘, 지속 가능하려면” 검색일 : 2020년 5월 30일.

<뉴스시스> (<https://n.news.com/article>), 2019년 11월 27일자, “문화재 이해 더 쉽게...올해 문화재 안내판 1392건 개선” 검색일 : 2020년 5월 18일.

<동아일보> ([www.donga.com](http://www.donga.com)), 2019년 3월 26일자, “‘제주의 명소’ 성산일출봉 유채꽃밭이 사라졌다” 검색일 : 2020년 6월 3일.

<서귀포신문> ([www.seogwipo.co.kr](http://www.seogwipo.co.kr)) 2008년 3월 20일자, “제주 세계자연유산 홍보안내판 새 단장” 검색일 : 2020년 4월 23일

<제민일보> ([www.jemin.com](http://www.jemin.com)), 2002년 3월 18일자, “문화재 안내판 대대적 보수” 검색일 : 2020년 5월4일.

<제주신문> ([www.jejuress.co.kr](http://www.jejuress.co.kr)), 2015년 3월 3일자, “중국인 신혼관광객 꿈틀” 검색일 : 2020년 6월 1일.

<제주환경일보> ([www.newsje.com](http://www.newsje.com)), 2010년 3월 5일자, “서귀포시 성읍민속마을 내 안내간판 일체정비” 검색일: 2020년 6월 12일.

<조선일보> ([www.chosun.com/news/](http://www.chosun.com/news/)), 2018년 2월 28일자, “성산일출봉 입장료, 12년만에 오른다” 검색일: 2020년 4월 20일.

<한겨레21> ([www.h21.hani.co.kr](http://www.h21.hani.co.kr)), 2018년 3월 19일자, “알뜨르비행장에 평화 내릴까” 검색일 : 2020년 5월 10일.

<cbs news> ([www.cbci.co.kr/news/](http://www.cbci.co.kr/news/)), 2020년 4월 20일자, “문화재 안내판 문구 직접작성 공모” 검색일 : 2020년 5월 18일.

#### 4. 웹사이트

국가법령보호센터 ([www.lasw.go.kr](http://www.lasw.go.kr)) 검색일 : 2020년 5월 12일.

문화재청 ([www.cha.go.kr](http://www.cha.go.kr)) 검색일 : 2020년 5월 1일.

(사)한국경관학회 ([www.kolanco.or.kr](http://www.kolanco.or.kr)) 검색일 : 2020년 5월 21일.

서귀포시청 ([www.seogwipo.go.kr](http://www.seogwipo.go.kr)) 검색일 : 2020년 4월 20일.

위키백과 ([www.ko.wikipedia.org](http://www.ko.wikipedia.org)) 검색일 : 2020년 5월 2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www.unesco.or.kr](http://www.unesco.or.kr)) 검색일 : 2020년 5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http://www.jeju.go.kr)) 검색일 : 2020년 5월 1일.

텀스 ([www.terms.co.kr](http://www.terms.co.kr)) 검색일 : 2020년 5월 20일.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 검색일: 2020년 4월 3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 2020년 4월 19일.

MarylandReporter ([www.marylandreporter.com](http://www.marylandreporter.com)) 검색일 : 2020년 5월 21일.

## 부 록

### 1. ‘성산일출봉’ 안내판

<그림 37> ‘성산일출봉’ 홍보관 옆 안내판1



**분석:** 성산일출봉 매표소 가기 전 홍보관 옆에 있는 5개의 홍보안내판 중 하나이다. 이 안내판이 설치된 시기는 2019년으로서 유산 내에 설치된 다른 안내판에 비하여 최근에 설치됐다. 안내판 재질은 금속패널이다. 위에서 바라보는 성산일출봉사진과 지하에서 솟아나는 화산의 모형도 중간에 해설을 집어넣어 전체적인 구도가 잘 잡혀 있다. 모형도 설명하단에 ‘**섯시형화산**’이라는 표현에 대한 보완 설명이 없다.

**제안:** 관람객이 처음으로 접하는 안내판인데 성산일출봉해설의 시작을 지질공부로 시작하는 느낌이 든다. 이 안내판에서는 성산일출봉의 일반적인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단어 ‘수성화산’은 지질에 흥미가 없는 관람객에는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문장에서 간략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문장 중에 ‘**응회구란 화산재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를 ‘**응회구란 화산재 언덕이다**’로 바꾸던가 ‘응회구’대신 ‘**화산재언덕**’으로 쓰면 관람객들이 해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섯시(Surtsey):**쉬르트세이섬이라고 불리는 아이슬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섬이다. 1963년11월14일 화산이 폭발하였다.

<그림 38> '성산일출봉' 홍보관 안내판2



**분석:** 홍보관 옆에 있는 5개의 안내판 중 2번째 안내판이다. '성산일출봉'의 이름에 대한 유래와 규모를 설명하고 있다. 안내판 설명 순서가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설명되다가 다시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서가 반복된다. 첫 번째 안내판처럼 이 안내판도 성산일출봉의 사진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어야 한다. 바탕사진위에 안내판의 규모에 비하여 작은 글씨로 설명이 가득하다. 안내판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화재이름의 유래와 규모를 설명하고 있다. 설명하는 내용과 어울리는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

**제안:** 외국어의 남용 때문에 언 듯 보면 안내판 가득 설명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 4줄만을 설명하고 있다. 종합안내판인 경우 제목은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를 써도 되지만 설명까지 중국어, 일본어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문화재청에서는 제안한다. 성산일출봉규모를 설명함에 있어서 '바닥면의 높이가 해발 90m'라는 문구가 관람객을 혼란스럽게 한다. 전체적으로 설명의 내용에 비하여 안내판 공간의 낭비가 심하다. 안내판 공간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를 생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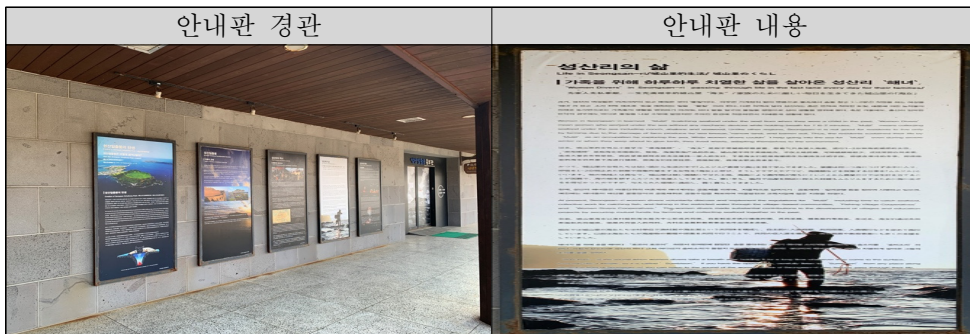
<그림 39> ‘성산일출봉’ 홍보관 안내판3



**분석:** 성산일출봉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고려시대 원나라와 삼별초의 이야기, 조선시대에 성산일출봉을 전략적으로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역사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언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한 연도가 없다. ‘반기’ ‘봉수’ ‘진성’ ‘방호소’등 중학생 이하의 지식수준을 가진 관람객들은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들어있다. 무엇보다도 해설에 있어서 제주도 전체의 역사를 마치 성산리만의 역사라는 듯 끌어다 설명하고 있다.

**제안:** 제주도 전체의 역사를 여기서 끌어다 쓸 필요는 없다. 차라리 이 안내판에는 성산일출봉과 연관된 성산리의 주민들의 삶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면 좋을 것 같다. 굳이 역사 설명이 필요하다면 성산일출봉에 일본군 진지동굴이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시대에 연관된 설명을 하면 될 듯하다.

<그림 40> ‘성산일출봉’ 홍보관 옆 안내판4



**분석:** 제주도 해녀에 대한 이야기를 ‘성산리’ 해녀로 범위를 좁혀서 설명하고 있다. 해설 내용 중에 ‘다른 지역과 달리 성산리는 좁은 면적과 척박한 토질,



해풍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로 농사만으로는 가족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라는 문구를 보면 대체적으로 성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문제이다. 그리고 현재 성산리해녀의 상황은 제주도전체 해녀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제안:**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성산리에 해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안내판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해녀의 이야기를 마치 성산리해녀만의 이야기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안내판에 성산리해녀만의 특징을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 숨비소리 설명은 다른 문장들과 결을 달리하고 있어 문맥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 문장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림 41> '성산일출봉' '응회구'해설 안내판



**분석:** 안내판이 후미진 펜스 뒤에 설치되어 있다. 첨부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설이 화면이 1/2를 차지한다.(개별안내판의 공통점). 설명내용은 수성화산, 응회환, 응회구이다. 수성화산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는데, 응회환과 응회구에 대한 설명은 그림으로 대처하고 있다.

성산일출봉의 지질을 설명하는 첫 번째 해설안내판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찾기 힘든 후미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해설내용이 일반인에게 생소한 지질에 관한 설명이다. 지질에 관심을 갖는 관람객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할 텐데 보충설명 연결되는 QR코드가 없다.

**제안:** 안내판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응회구, 응회환은 화산재가 쌓인것'이라는 뜻풀이가 필요하다. 중국어 일본어 해설을 생략하면 화면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지질설명 안내판에서는 설명은 쉽고 간략하게 좀 더 깊은 설명은 다른

안내매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면 좋을 듯하다. QR코드를 활용하던가 소책자를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영어해설에서 응회환과 응회구를 Tuff rings, Tuff cone이라 번역하였는데 'Tuff'는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이므로 다른 단어로 대체하면 좋다.

<그림 42> '성산일출봉' '등경대' 안내판



**분석:** 성산일출봉의 개별안내판 중에 유일하게 전설을 설명하는 안내판이다. 해설의 양이 많다. 안내판중 유일하게 글쓴이를 표기하였다. 성산일출봉의 대부분의 개별안내판은 지질에 대한 설명인데 이 안내판은 전설에 관한 안내판이라 신선한 느낌을 준다. 등반하면서 읽기에는 해설의 양이 많다. 외국어 표기가 화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경관을 해칠 정도는 아니지만 안내판의 크기가 눈에 거슬릴 정도로 크다. 설문대할망 애기와 김통정장군 이야기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어 읽기가 불편하다.

**제안:** 해설의 양이 많아 관람객이 읽기에 부담이 간다. 해설을 줄이고 삽화나 사진을 곁들이면 좋을 듯하다. 해설을 돕기 위하여 그림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것을 문화재청에서는 제안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나 연관된 이야기를 첨가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으면 좋을 듯하다. 다른 안내판도 적요되는 제안이지만 외국어는 영어 하나로 한정되면 화면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설문대할망과 김통정장군 이야기에 대해서는 문단을 따로 두어야 관람객이 읽기에 편안하다.

<그림 43> ‘성산일출봉’ ‘등경대’ 경고 안내판



**분석:**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전설이 깃든 바위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관계가 불분명하다. 경고안내판으로서 크기는 적당하다.

**제안:** 문구내용을 차라리 ‘이 등경들은 마을주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신령스러운 바위이니 올라가거나 훼손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쓸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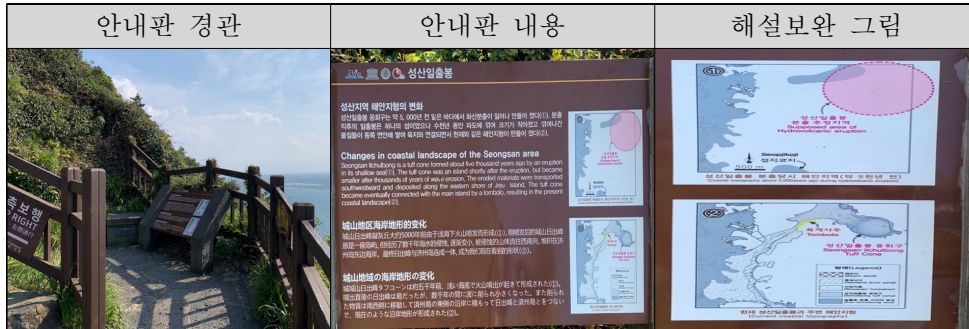
<그림 44> ‘성산일출봉’ 바위해설 안내판



**분석:** 성산일출봉의 바위에 대한 지질설명이다. 지질설명에 그림이나 삽화가 들어있지 않다. 등경돌 해설을 읽지 않고 올라온 관람객에 안내판 내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문장이 길고 지질용어인 화산체, 사면, 화산재층, 지층 같은 단어들 지질상식이 없는 관람객들이 읽기에 불편하다.

**제안:** 딱딱한 지질설명에 그림이나 삽화가 들어가 있으면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내판내용치고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다. 긴 문장을 잘라서 두세 문장으로 나누면 읽기가 편할 것이다. 지질용어를 일반용어로 바꾸거나 생략하면 관람객들이 더 이해를 쉽게 할 것이다.

<그림 45> '성산일출봉' '육계사주'해설 안내판



**분석:** 전경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관람객들이 가지 않는 후미진 곳에 있다. 설명과 함께 육계사주가 만들어 지는 과정을 ①, ② 그림으로 나타냈다. 해설 보완 그림이 교과서적이라 딱딱하고 관람객의 위치와 반대방향으로 그려져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보완 설명하는 QR코드가 없고, 외국어표기로 화면의 낭비가 심하다.

**제안:** 설명을 보충할 그림이 교과서같이 딱딱해서 관람객의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림이나 사진을 곁들이면 좋을 것 같다. 좀 더 깊은 정보를 원하는 관람객을 위하여 QR코드를 설치하면 좋을 듯하다.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표기를 생략하면 화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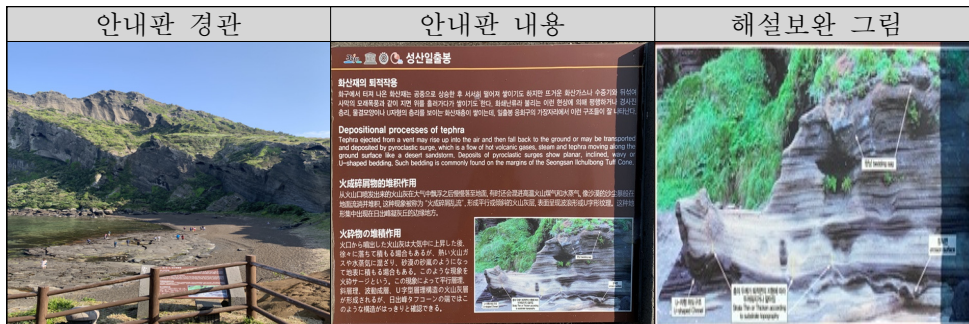
<그림 46> '성산일출봉' 해녀해설 안내판



**분석:** 해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해녀물질공연 시간표가 있다. 해녀의 집이라는 식당 옆에 설치되어 있어 혼잡하다. 안내판의 규모에 비하여 글자가 작아서 관독하기 어렵다. 해녀의 집이라는 식당을 간접 광고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제안:** 안내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내판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혹은 글자를 크게 해서 가독력을 높이면 좋을 것 같다. 웅장한 사진에 비하여 안내판의 디자인이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걸도는 느낌이 든다. 안내판의 배경색깔에 맞추어 바꾸면 좋을 듯하다. 안내판의 목적에서 벗어난 해녀물질공연 혹은 해녀식당의 홍보판 같은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만약 해녀공연과 식당운영이 필수적이라면 관람객들이 인지하기 쉽게 해녀물질공연시간을 좀 더 뚜렷하게 쓸 필요가 있다.

<그림 47> ‘성산일출봉’ ‘화쇄난류’ 해설 안내판



**분석:** 펜스 뒤에 설치되어 있어 관람객이 안내판을 읽기가 불편하다. 또한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해설 내용은 생소한 지질상식인 화쇄난류이다. 관람객이 ‘응회구’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하고 있다. 해설을 돕는 그림에 탄낭, U자형구도, 침식면 등 지질용어가 남발하고 있다. 보완해설을 들을 수 있는 QR코드 같은 다른 해설매체를 얻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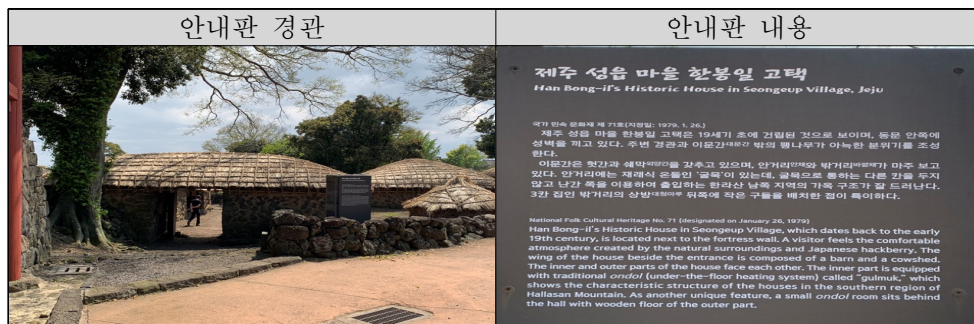
**제안:** 관람객들의 가독을 높이기 위하여 안내판을 개선하여 펜스 뒤가 아닌 펜스 앞에 설치하면 좋다. 해설의 내용을 보면 관람객들이 ‘응회구’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하고 있다. 퇴적작용, 화쇄난류같은 지질학설명은 일반관람객들에게 난이도가 높은 지식이므로 이런 깊은 설명은 QR코드같은 다른 해설매체로 넘기고, 보다 간략하고 흥미 있는 해설을 하면 좋다.



안내판의 높이가 낮고 색깔과 객사의 담벼락 색이 비슷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으나 위치가 원편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관람동선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안내판의 내용은 객사의 두 가지 기능과 사용처를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안내판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으나 쉽게 위치변경하지 못한다. 외국어는 영어해설만 있다.

**제안:** 객사는 성읍마을에서 임금님을 모시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내판이 설명은 짤막하고 딱딱하다. 분위기 전환을 위하여 객사에 관한 간단한 에피소드를 넣어도 좋을 듯하다. 안내판과 소책자의 해설 범위를 따로 두어서 체계가 잡히지만 안내판에는 객사를 영어로 (Guesthouse)라 표현하고 있고, 소책자에는 (Boarding house) 소개하고 있다.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안내판을 시멘트로 고정시키지 말고 내구성이 강하고 위치변경이 가능한 재질을 쓰기를 권장한다.

<그림 50> ‘성읍마을’ ‘한봉일가옥’ 안내판



**분석:** 안내판이 집 앞에 우뚝 솟아 있어서 위압감을 주고 있다. 가옥이 지어진 연대 설명 후 가옥구조에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소책자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제안:** 외쪽에는 고즈넉한 팽나무 오른쪽에 커다란 비석 같은 안내판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안내판의 위치를 변경하여 위압감을 없애야 한다. 안내판 내용을 이곳에 살았던 사람 혹은 가옥의 기능에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소책자에 가옥의 구조를 설명하여 정보전달 체계를 잡아야 한다. 안내판에 해설할 내용이 많지 않으면 크기를 작게 하여 집안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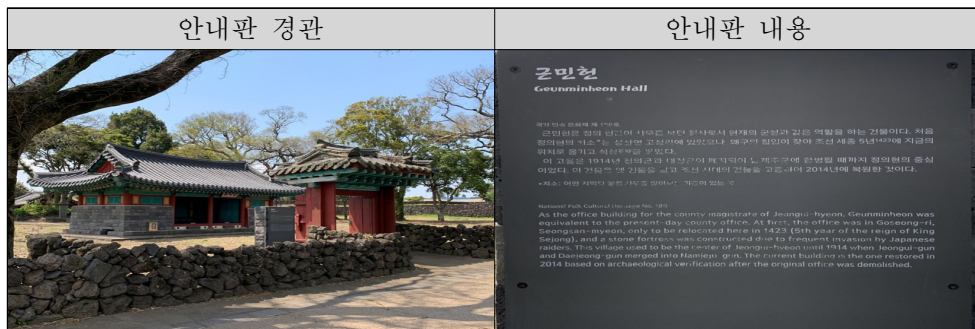
<그림 51> ‘성읍마을’ 종합안내판



**분석:** 성읍마을의 중심부에 설치된 안내판이다. 남문 밖 안내판과 동일한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입구에 설치된 같은 안내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내판은 경관을 해치고 관람객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다.

**제안:** 불필요한 안내판이다.

<그림 52> ‘성읍마을’ ‘근민헌’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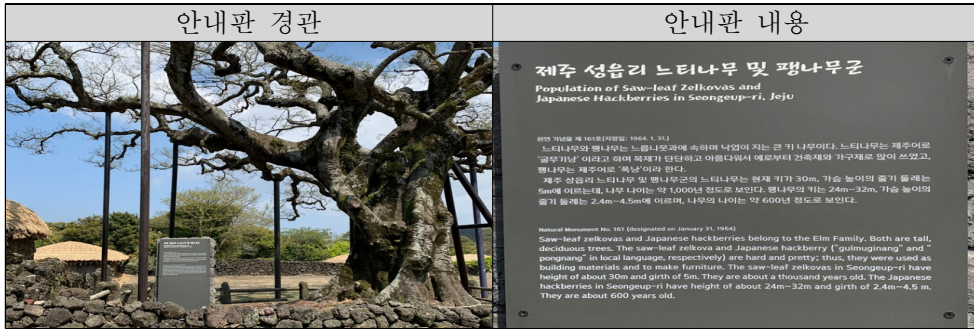


**분석:** 원래 있었던 건물이 아니라 조선 시대 건물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하였다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다. 근민헌 입구 안 왼쪽에 설치되어 있다. 크기가 적당하고 돌담과 색깔이 잘 어울린다. 안내판제목에 ‘성읍 마을’을 생략하고 ‘근민헌’만 남겨서 제목부터 간소한 느낌이 든다. 내용이 간략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았다. 안내판의 제목은 근민헌인데 소책자에는 일관헌으로 나와 있다.

**제안:** 안내판과 소책자의 제목을 일치시켜야 한다. 다르면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글씨가 좀 지워진 관계로 관리가 필요하다. 안내판 크기가 조금 작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문화재청에서 제안하는 기준가 가장 가까운 모범적인 안내판이다.



<그림 53> '성읍마을' '느티나무' 안내판



**분석:** 소책자와 안내판의 내용이 중복된다. 안내판이 돌담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고 느티나무가지 밑에 설치되어 있어 이질감이 느껴진다. 다른 안내판에는 제목서두를 '성읍마을'이라 하는데 이 안내판은 '성읍리'라고 쓰여 있다. 천연기념물로 소개하는데 나무 하나가 천연기념물인지 아니면 성읍마을의 느티나무와 팽나무 전체가 천연기념물인지에 대해 설명이 없다.

**제안:** 안내판과 소책자의 내용의 체계를 잡아야 한다. 안내판에서는 핵심을 간략하게, 소책자에서는 좀 더 깊게 설명해야 한다. 제주도 '폭낭'에 대한 에피소드 얘기를 넣으면 안내판 내용이 부드러워 질 것이다. 나무 하나가 천연기념물인지 아니면 느티나무군락이 천연기념물인지를 명확하게 구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림 54> '성읍마을' '할망당' 안내판



**분석:** 안내판이 경관을 해칠 정도는 아니지만 당의 규모에 비하여 좀 크다는 느낌이 든다. QR코드가 없고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책자에도 설명이 없다. 다른 곳에서 제를 지냈던 것을 이곳에 신당을 만들어 옮겼다는 설명 등

이 있는데 설명이 길어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제안:** 안내판의 크기를 작게 하고 설명내용을 간략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할망당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스토리텔링은 다른 설명매체를 이용한다. 특히, 할망당은 제주도의 신당으로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이다.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그림 55> ‘성읍마을’ ‘고창환고택’ 안내판



**분석:** 고택의 위치와 건립시기, 용도를 설명하고 있다. 가옥의 구조형태와 정남이 없다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설명이 대부분을 가옥의 용도와 구조에 할애하고 있다.

**제안:** 안내판을 최대한 작게 만들 필요가 있다. 보완 안내매체와 연결하여 안내판에는 간략한 정보 그리고 다른 안내매체는 스토리텔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림 56> ‘성읍마을’ ‘서문 돌하르방’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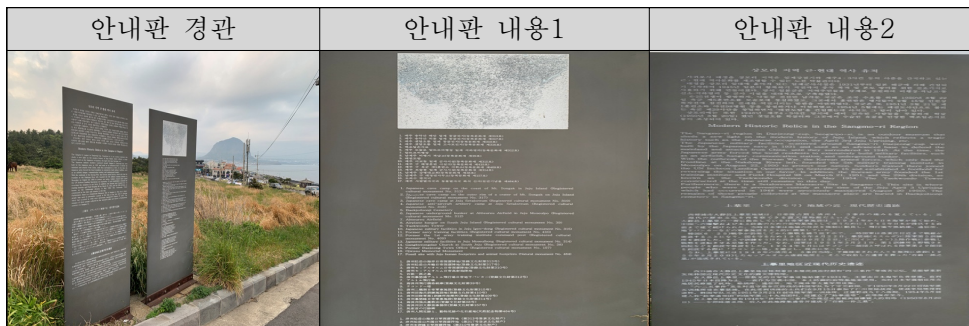
**분석:** 4기의 돌하르방이 서문 밖에 세워져 있고, 서문을 향하여 왼쪽 2기 옆에 안내판이 있다. 안내판의 내용은 동문에 있는 내용과 단어 몇 개와 돌하르방의

규모묘사를 제외하고는 일치한다.

**제안:** 돌하르방은 성읍마을을 대표하는 문화재이며 관람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소재이다. 돌하르방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안내판을 제외하고 다른 안내매체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동. 서. 남문에 있는 돌하르방의 안내판을 다양화시키고 스토리를 분산시켜 관람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알뜨르비행장’ 안내판

<그림 57> ‘알뜨르비행장’ ‘상모리지역’ 해설 안내판



**분석:** 종합안내판 역할을 하는 안내판인데 위치표시지도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있다. 상모리 근.현대 역사 유적을 간략 설명하고 있는데 식별이 분명하다. 안내판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번역으로 채워져 있어 화면을 실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 안내판에 있어야할 세세한 이야기가 종합안내판에 있다.

**제안:** 종합안내판은 모든 안내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내판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식별하지 못 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다. 안내판 수리 혹은 교체가 필요하다. 특히 다른 보완 해설매체가 없는 이 유적지에서 안내판에 QR코드를 설치해야 한다. 문화재청에서 외국어 표기는 영어로만 표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화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림 58> ‘알뜨르비행장’ ‘셋알오름’ 일제고사포진지 안내판1



**분석:** 5기의 고사포 진지 중 4기는 완공되고 나머지 1기는 미완공이라는 것을 안내판의 내용만을 보고서는 확인 할 수 없다.

**제안:** 관람객의 지식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내판외 다른 해설매체가 필요하다. QR코드나 소책자발행을 제안한다. 안내판제목에 ‘제주’를 생략하고 ‘일제’를 ‘일본군’으로 바꿔야 한다. 내용 중 ‘5기의 고사포~’부분을 보면 장소가 언급되지 않아 관람객이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동선에 따라서 알뜨르비행장이 뭔지를 모르는 관람객들이 있을 수 있다. 알뜨르비행장의 위치표시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림 59> ‘알뜨르비행장’ 셋알오름 일제 고사포진지 안내판2



**분석:** 안내판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사실감과 풍성함을 느끼게 한다. 다섯줄 설명하는 안내판치고 화면이 크다. 중국어, 일본어 표기가 안내판의 내용을 혼잡하게 한다. 내용면에서 ‘양각(仰角)’, ‘포상(砲床)’이라는 한자어가 나오는데 뜻풀이가 없다.

**제안:** 안내판화면이 중국어,일본어표기로 인하여 비대해졌다.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는 생략하면 화면 활용 면에서 좋다. QR코드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이 든다. 내용을 보충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 내용면에서 “양각(仰覺)’ ’포상(砲床)’ 단어를 생략한다. 제목에서 ‘제주’는 생략하고 ‘일제’는 ‘일본군’으로 바꾼다. 노후화된 사진교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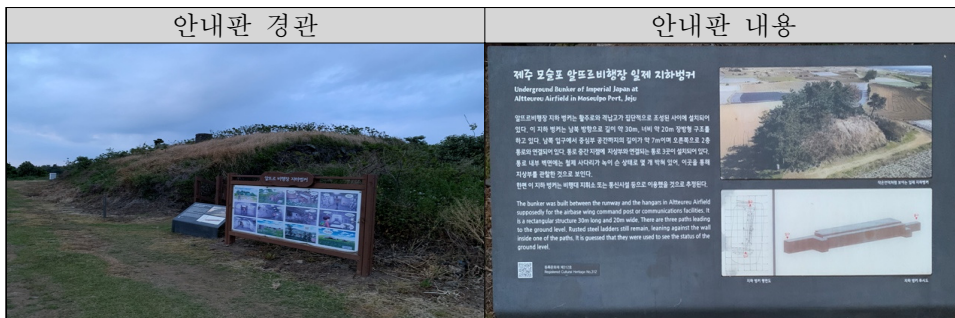
<그림 60> ‘알뜨르비행장’ 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



**분석:** 셋알오름 일본군 고사포와 연관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 동굴배치도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영어번역이 없다. 내용면에서 ‘동공’ ‘격자’ 같은 한자어가 보인다. ‘일제의 침략성을 보여 준다’같은 객관성에서 벗어난 표현이 들어있다. 영어표현에서는 ‘일제의 침략성’이라는 표현 대신 다른 표현을 썼다.

**제안:** 내용면에서 셋알오름 일본군 고사포와 연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안내판에 영어번역이 없으면 외국인이 당황한다. 동굴배치도에 영어번역이 필요하다. ‘동공’ ‘격자’같은 한자어를 생략해야 읽기가 편하다. ‘일제의 침략성을 보여 준다’는 주관적 표현이다. 영어번역에서처럼 ‘일제가 남기 전쟁 유물이다’같은 객관적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

<그림 61> ‘알뜨르 비행장’ 일제 지하병커 안내판



**분석:** 내용은 주차장에 있는 대형 안내판과 동일하다. 안내판 왼편에 공중에서 보는 병커와 건축전공생이나 이해할 수 있는 지하병커 평면도와 투시도가 있다.

**제안:** 안내판내용을 위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안내판에는 정확, 간략, 필요

한 정보를 넣고 보완 안내매체에는 스토리텔링 혹은 부차적인 설명을 게시하면 된다. 투시도와 평면도는 좀 더 쉬운 그림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림 62> ‘알뜨르비행장’ 일제 지하병커 애니메이션 안내판



**분석:** 어린이용 만화 안내판은 감정이입이 쉽게 될 수 있다. ‘소름끼친다’, ‘평화로운 곳에서 무수한 생명을 해치는 비행기’, ‘그림자를 그리며 아픔의 역사를 전해줌’등 어린이의 역사공부를 객관적 시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전의 메시지일 수 있지만 반일의 메시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제안:** 화면을 많이 차지하는 대형 안내판은 문화재와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내용을 보완할 다른 안내매체를 필요 없으나 그림하나 문구하나에 세밀한 신경을 써야 한다. 반전을 위한 안내판이 반일을 위한 안내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프로파간다적 안내판은 지양해야 한다.

【Abstract】

**A study on current condition of heritage signboard  
and improvement plan of Jejudo**

**-Focused on Seongsan Ilchulbon, Seongup Village, Altteure Airfield-**

Dong hak Hyun

Department of Nation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Advisor Professor Eun Seok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 of Jejudo's heritage signboard, find problems, seek improvement measures, and ultimately present the Jeju-type heritage signboard model. The heritage signboard is the most easily accessible medium to get to know the cultural level of the place when you visit it.

A heritage signboard could be an indicator of not only the nature·culture·geography·geology·and ecology of the region but also people's cultural level. A heritage signboard, which describe cultural properties, can be a window that visitors see them through.

Most visitors do not have prior knowledge of the heritage of the place, so if the window viewing the heritage is triangular, the heritage appears triangular, and if it is square, it appears square. If the window is red, it will appear in red, and if it is blue, it will appear in blue. So, signboards are important media for visitors to appreciate heritages.

Until now, Jejudo's signboard was not made objectively by following

certain rules, but was sporadically made by the author's intention. So, visitors who visited Jejudo have turned away from the heritage signboards and as a result, after seeing jejudo most of them returned without knowing it.

Despite this seriousness, there has not been a proper study on heritage signboard so far. Therefore, this researcher(I) will to analyze Jejudo's heritage signboards, find problems and present a Jeju-type signboard model.

In order to analyze the signboards, an analysis tool is needed. So, in this study, the 5 principles of the improvement of the signboards from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at diverse experts worked together have been decided to apply to the heritage signboards.

The 5 principles are: 1. Design 2. System 3. Landscape 4. Information 5. Efficiency principles. These principles are effective and could be standard to improve previous signboards but it's not a universal tool. Because applying the principles from higher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uniformly to analyzing signboards may be effective bu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will be disappeared.

Therefore, I have considered the speciality of Jejudo while applying 5 principles to the analysis of heritage signboards

It's not easy to research and analyze all of the signboards in Jejudo. So, This researcher(I) have selected Seongsan ilchulbong, Seongeup village, Altteureu airfield from the Jeju's heritage sites to analyze the signboards.

Seongsan ilchulbong is a representative of Natural Heritage not only in Jejudo but also in South Korea, and is visited by over 2 million visitors a year. Seongeup village is the only remaining town castle in Jejudo and has lots of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s. And, the Altteureu airfield is not only highly valued for a heritage but is also an important place that penetrate the comtemporany history of Jejudo and has many trekking travelers.

But the more fundamental reason for choosing these three places is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found in the signboards comparing to the value of



the heritages. After researching the above three places' heritage signboards, five of each of them were selected base on the 5 principles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published on this paper.

To summarize the problems of the signboards, Seongsan ilchulbong's violate of landscape and information principles. The signboard did not stand the visitor's moving line, and was hidden in the bush or design was exaggerated. The more serious problem was found in contents of the signboard, most of the information on the boards are difficult to understand without expert knowledge of geology. Even though the signboards in Seongup village has been replaced in 2017, there seems to be still many problems in contexts. In particular, the signboards couldn't share information with booklets, which is used as supplementary medium for signboards. Visitors may be confused about what true is between the signboards and booklets because their information is different. In addition, the information on the signboards needs to be focused more on the identity of Seongup village.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signboards in Alttreureu airfield is that there is no objective in the information on the basis of 5 principles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important elements in signboards are objectivity and truth. The signboards in Alttreureu airfield lack of these.

However,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signboards, the researcher(I) did not find only the signboards with the problem. Fortunately, There are some signboards which made 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Jejudo. For example, the signboard which uses the stone wall of Seongeup village as a prop can be the one that utilizes the identity of Seongup village.

This example can be suggested as one of the principles of Jeju-type signboard model utilizing landscapes and designs. Likewise, the context of signboard's guideline should focus on storytelling that fits Jeju's identity, and create a commentary that can be interesting.

The Jeju-type signboard model is not the signboard that violate the 5

principles from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n the other hand, it should follow the principles and expertise from higher department in order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Jeju. That is so called the Jeju-type signboard model by the researcher(I) suggest.

**Key words:** signboard, speciality, identity of Jeju, principles to improve signboards,  
Jeju-type signboard model